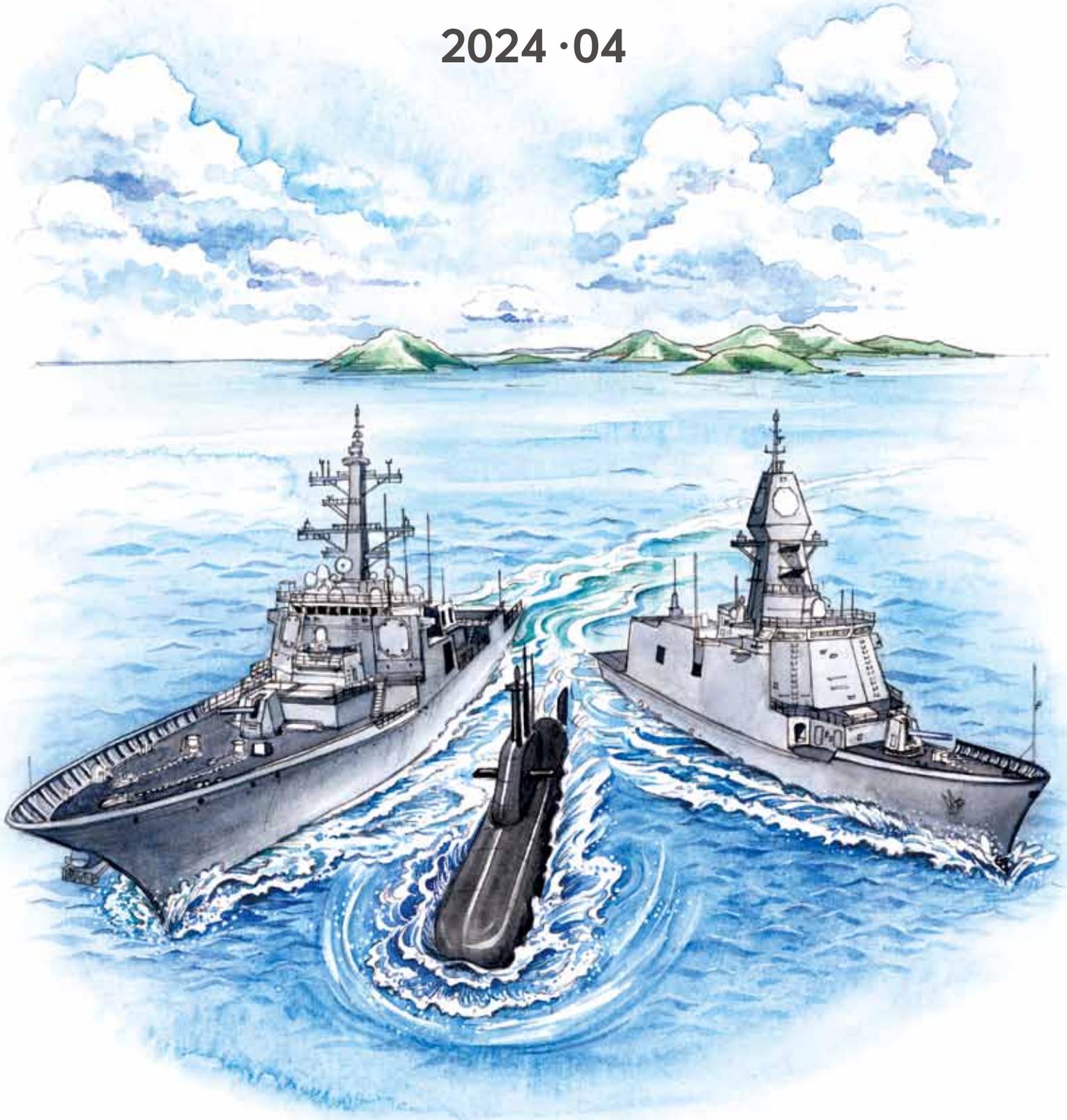


HD현대중공업가족

2024 · 04





12



20

CONTENTS

2024 April
Vol.100

HD현대중공업가족 2024년 4월호
발행일 4월 5일(금)

발행처

HD현대중공업
문화홍보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 052)202-2268

HD현대미포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 052)250-3319

HD현대삼호

총무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 061)460-2154



HD현대중공업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기획1: 수상함 명가, HD현대중공업

- 04 세계로 뻗어가는 특수선
- 07 대한민국 특수선 1번지

기획2: 소통하여 향유하는 기업문화

- 08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

사람 + 일

- 12 **창업자를 추억합니다**
아산 정주영 23주기 추모행사
- 14 **뉴스 포커스** 새이름, 새출발
- 15 **이달의 화제**
베트남 근로자 가족 현지 초청행사
- 16 **현장을 가다**
HD현대미포 공사지원부 장비운영1팀
- 20 **이달의 모임**
활력 충전 '사내 동호회'
- 23 **만나봤습니다**
다인안전산업 정우돈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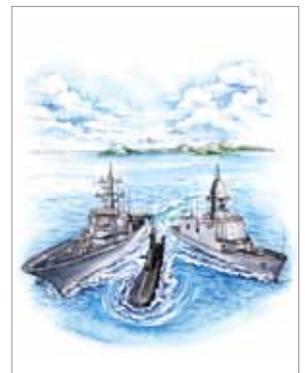
지역 + 삶

- 24** 자녀와 함께
최제우 유학지 '동학관' 개관
- 26** 찐 로컬 명소
경남 양산 통도사 서운암
- 28** 과학 동행 전국 테마 과학관 소개
- 30** 가볼만한 곳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 32** 우리 동네 웰빙
아산헬스케어센터 개소
- 33** 트렌드 따라잡기 육각형 인간
- 34** 나를 만나는 시간 긍정적 나르시시즘
- 36** 건강 칼럼 건강검진의 중요성
- 38** 문화 포커스
제 2회 HD현대가족 초대작품전 개최,
이달의 공연, 이달의 영화
- 42** 사우들의 추천 도서
- 44** 축구단 소식

보람의 일터

- 46** 뉴스 하이라이트
- 50** 그룹사 소식
- 52** 만화로 보는 ESG!
- 54** 공감 마당
- 55** 축하합니다
- 56** HD현대 가족 글마당
- 57** 쉬어가는 페이지
- 58** 핵심가치 웹툰

표지디자인 김민호 작가
HD현대중공업의 함정(정조대왕함, 신채호함,
충남함)들을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바다로, 세계로의 항해

바다를 둘러싼 패권 다툼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해양 군사력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HD현대가 중남미에서 방산 수출 사상 최대의 함정을 수주하는 등 특수선 사업을 강화하며 글로벌 함정 명가로 거듭나고 있다.

美 해군성 장관도 감탄한 HD현대 함정

미국 해군성 카를로스 델 토로(Carlos Del Toro) 장관이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지난 2월 27일(화) 델 토로 장관이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날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과 만나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사업 현황과 기술력을 직접 소개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은 세계 1위 위용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 조선 야드를 둘러본 후 함정을 건조하는 특수선 야드를 방문했다. 이들은 특수선 야드에서 올해 인도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

조대왕함'과 신형 호위함 '충남함' 등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주요 함정을 살펴봤다. 특히 정기선 부회장이 11안벽에 접안해 있던 '정조대왕함'의 특징과 기술력에 대해 설명하자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군은 세계 방산 시장의 최대 고객으로, 미 해군의 태평양함대만 약 200척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본토에서 해군 함정을 유지·보수·정비(MRO)하는 물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일부 물량을 해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비해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를 위한 자격인 MSRA(Master Ship Repair



▶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장관에게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야드와 건조 중인 함정을 소개하고 있다.



Agreement)를 신청해 올 초 야드 실사까지 마쳤다. 군함은 수출 이후 MRO 사업이 필수적이고 규모도 커 최근 이에 대한 사업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등 주요 방위산업체는 잠수함 등을 수출한 뒤 30년 이상 MRO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 필리핀에 군수지원센터를 설립하며 국내 함정 건조 업체 최초로 해외 MRO 사업에 나섰다.

100억 달러 동남아 함정시장 개척

함정 사업에 있어서 미국이 '보장된' 시장이라면, 동남아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시장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동남아 함정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필리핀에 마련했다.

HD현대중공업은 마닐라의 보니파시오(Bonifacio Global City)에 특수선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개소했다. 지난 3월 6일(수) 현지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와 필리핀 국방부 호셀리토 라모스(Joselito Ramos) 국방획득차관보, 시저 발렌시아(Caesar Valencia) 해군 부사령관 등 양측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이 해외에 특수선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급성장이 예상되는 동남아 함정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방산 지출 규모는 지난해 80억 달

러(약10.6조원)에서 오는 2030년 100억달러(약 13.3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리핀은 태평양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해 해군력 증강에 대한 수요와 의지가 커 잠재 역량이 큰 시장으로 꼽힌다.

필리핀 엔지니어링 오피스에는 △설계 엔지니어 △MRO(유지·보수·정비) △영업 담당 직원 등이 근무하며 현지 수요에 최적화된 기술 사양을 제공한다. 또 기존에 인도된 함정의 기술지원 및 보증수리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기반으로 필리핀 사업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리핀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방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내 정세 파악과 잠재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영업 경쟁력을 확대해 2030년 특수선 매출 2조원 달성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중남미서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 수주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로부터 3천400톤급 호위함 1척, 2천200톤급 원해경비함 1척 및 1천500톤급 상륙함 2척 등 총 4억 6천290만 볼 규모의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HD

현대중공업은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오는 2029년까지 이들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이 함정의 설계, 기자재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시마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게 된다. 특히, 이번 HD현대중공업의 수주는 정부 기관과 기업이 하나가 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경쟁한 경쟁국들을 제치고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 페루 해군은 호위함 5척, 원해경비함 4척, 상륙함 2척 등을 추가 발주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예정된 본계약이 체결되면 HD현대중공업은 향후 15년간 페루 해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을 이어 나간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미 지역은 노후화된 함정이 많아 최신 함정으로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수주가 지역 내 다른 국가로도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수주한 호위함은 길이 127m, 폭 14.9m, 최대속도 26.5노트, 항속거리 6천해리로, 대함미사일과 수직발사대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AESA 레이더가 장



HD현대중공업이 페루로부터 수주한 3천400톤급 호위함(가운데), 2천200톤급 원해경비함(아래), 1천500톤급 상륙함(위)의 조감도

착될 예정이다. 원해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속도 20노트, 항속거리 6천해리로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탑재 장비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미션 모듈(Mission Module)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륙함은 길이 58m, 폭 13.2m, 최대속도 10노트, 항속거리 1천500해리로, 대형 장갑차 7대 이상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해외 함정 수주 실적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8천400톤급 군수지원함 인도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출용으로 개발한 2천2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다.

· 인도 완료 6척



뉴질랜드

- 1987년 군수지원함(1만2천톤) '엔데버함'
- 2020년 군수지원함(2만6천톤) '아오테아로아함'



방글라데시

- 1997년 해군용 경비함(600톤) '마두마티함'



베네수엘라

- 2001년 군수지원함(1만톤) '사우다드볼리바르함'



필리핀

- 2020년 호위함(2천600톤) '호세 리잘함'
- 2021년 호위함(2천600톤) '안토니오 루나함'

· 건조 중 8척



필리핀

2척

3천200톤급
초계함

6척

2천400톤급
원해경비함

· 신규 수주 4척



페루

1척

3천400톤급
호위함

1척

2천200톤급
원해경비함

2척

1천500톤급
상륙함

특수선 名家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주요 함정

‘국가 방위산업분야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작된 특수선 사업.

HD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총 102척의 함정을 건조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건조 실적을 갖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주요 함정들을 알아보자.

구축함 8척

대함 또는 대잠 공격을 주임무로 수행하는 군함.

HD현대중공업은 KDX-II 사업에서 문무대양함·왕건함·최영함을 시작으로, 이지스 방공체계 탑재 구축함 KDX-III 사업의 세종대왕함·서애류성함을 건조했다.

KDX-III Batch-II 사업을 통해선 선도함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3척 모두를 수주했다.

또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에서는 지난해 말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 대표 함정 : 정조대왕함



호위함 14척

함대 호위를 주임무로 하는 전투함으로,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역사의 첫 발자국인 울산함이 대표적인 국산 호위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호위함 울산함·서울함·전남함·부산함, 인천급 호위함 인천함·경기함·전북함, 대구급 호위함은 서울함(재취역)·동해함·천안함·춘천함, 충남급 호위함 충남함 등을 건조했다.

· 대표 함정 : 충남함



잠수함 9척

수중 잠행 및 전투가 가능한 함정.

HD현대중공업은 KSS-II 사업을 통해 손원일급 잠수함부터 잠수함 건조를 시작했다. HD현대중공업은 손원일함 건조 과정에서 소재·장비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했고, 잠수함 독자 설계 기틀을 마련했다.

KSS-II 사업에서 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윤봉길함·홍범도함·신돌석함, KSS-III Batch-I 사업에서는 신채호함을 건조했다.

· 대표 함정 : 신채호함



초계함/고속정 8척

해상경계를 통해 경비·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중형함정.

HD현대중공업이 최근까지 건조한 초계함 중 대표적인 함정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세 리잘함이 있다.

그 밖에 국내에선 동해급 초계함 강릉함, 포항급 초계함 경주함·진주함·익산함·부천함·대전함·속초함·영주함 등을 건조했다.

· 대표 함정 : 호세 리잘함(필리핀)



경비함 39척

해양경찰이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 연안 수호를 위해 사용하는 함정.

대표적인 경비함은 태평양급 경비함으로, 태평양12·9·10·12·16호를 건조했다.

규모가 더 큰 삼봉급 경비함 삼봉함·이청호함도 HD현대중공업의 작품이다.

· 대표 함정 : 태평양16호



※ 그 외 군수지원함·상륙함·훈련함·기뢰부설함 등 24척

현장 곳곳서 변화 새 바람 “함께 바꿔갑니다”

HD현대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핵심가치 기반의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하며 ‘다니고 싶은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



사우들이 만드는 기업문화, “새바람 일으켜요”

HD현대 임직원들이 보다 나은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기업문화 TF 3기 활동을 시작했다. 기업문화 TF 3기는 오는 11월까지 월 2회 정기모임을 갖고 체계적인 기업문화 과제 발굴 및 추진, 핵심가치 내재화 활동에 앞장선다.

특히 올해는 업무 비효율 요소 발굴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핵심가치 전파, △세대·조직 간 소통 활성화, △도전문화 확산 등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22일(목)에는 인재교육원에서 ‘기업문화 TF 3기

킥오프(Kick off) 회의’를 열었다. 이날 CA(Change Agent) 16명은 지난해 가치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기업문화 개선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조선해양·엔진기계·특수선사업부 등 3개 조로 나눠 HD현대중공업의 기업문화에 대해 가감 없이 이야기 하며 앞으로의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3월 14일(목)과 15일(금)에는 사업부 별로 모여 업무 비효율에 관해 논의했고, 특히 이날은 회의문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CA들은 각 부문 임직원들에게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고자료 최소화, △회의 평점 시스템 도입, △회의 우수사례 전파 등의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HD현대삼호 역시 기업문화 리더, CA 3기가 지난 2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HD현대삼호 CA 19명은 기업문화 핵심가치를 확산하고 구성원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조직 내 변화활동을 주도하고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또, 혁신활동에 솔선수범하며 기업문화 변화방향에 대한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CA들은 앞으로 혁신자, 촉진자, 전파자라는 3가지 핵심역할을 통해 조직 단위의 기업문화를 디자인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회사는 CA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개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기업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장님, 동기들과 함께 격의 없는 소통

변화관리 분야의 거장인 존 코터 (John Kotter)는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한 답을 커뮤니케이션에서 찾았다. 그는 그의 저서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에서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의사소통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굿 리스너(Good Listener)가 되어 양방향 의사소통과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HD현대미포 기업문화팀의 여정은 이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2022년 기업문화팀이 신설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직

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었다. 대졸 신입사원 전원(약 150명)을 대상으로 15차수에 걸쳐 중식 간담회 “나, 우리 Lunch Talk”를 진행했으며, 이곳에서 나온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들의 목소리는 CA를 주축으로 진행된 일하는 방식 개선 회의체 활동의 밑거름이 됐다.

HD현대미포 기업문화팀은 지난해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해 직접 58차수에 걸쳐 전 부서 대상 Team-Up 워크숍을 진행, 핵심가치에 대해 부서 내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약 30차수 가량 진행되고 있는 대표이사 간담회 ‘김형과 통하다’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직무 인터뷰 등을 통해서 기업문화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불평, 불만인 ‘Pain Point’를 찾아내고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담당임원 단위로 편성했던 CA를 올해부터는 부서 단위로 확장, 조직을 재편했다. 새롭게 구성된 CA조직은 부서 단위로 구성원들의 니즈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변화를 위한 조직 단위의 의사소통과 참여를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2024년, 기업문화팀은 CA와 함께 HD현대미포의 일하는 방식(Code of Conduct)을 정립, 내재화시킴으로써 기업문화 근간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도해 나갈 방침이다.





HD현대삼호 역시 동료들과의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소통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HD현대삼호 기업문화혁신팀은 지난 1월 25일(목) 지원관 1층 홍보관에서 지난해 1월 입사한 대졸 사무(설계)기술직 입사자 55명을 대상으로 '동기그룹 네트워킹 활동지원 온보딩 행사'를 실시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진행된 이날 온보딩 행사는 동기그룹 간 서로 이해하고 협업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아이스 브레이킹 및 기존 1년간 활동내역을 공유한 후 동기회 임원진 및 MZ세대 관련 조별 퀴즈대회를 통한 팀워크 형성, MBTI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마인드리셋, 조별 문화 활동 미션 수행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HD현대삼호는 지난해 4월 입사한 동기그룹 31명을 대상으로 제2회 행사를 진행하는 등 앞으로 지속해서 온보딩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입사 6개월 시점에 동기그룹별 단체 활동 및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동기회 간 소모임 매칭을 통해 네트워킹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요”

생산 현장에서도 동료들과의 소통·현장 안전·생산성 등 다방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는 지난 2월 27일(화) 인재교육원에서 '한마음소통위원회 3기' 출범식을 가졌다. 소통위원장을 맡은 안전생산외업 부문장 임대준 전무는 소통

위원 5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소통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3기 소통위원들은 올 연말까지 생산현장 직원들이 겪는 고충을 가감 없이 전달해 긍정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이들은 주변 동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안전과 생산성 모두를 잡겠다는 각오다. 한마음소통위원회는 직접 토론 세미나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단체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외국인 근로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외부 특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장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크고 작은 시도들도 펼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6개월 단위로 '업무환경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내업·외업·선행·해양·고객/기획 등 부문 전체에 걸쳐 매 기수마다 약 800건의 크고 작은 안건을 다루며, 조선해양사업부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월에는 4기 위원회 이사범 기사(판넬조립1부) 외 총 120여명이 선발돼 본격 활동에 나섰다.

업무환경개선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는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며 겪은 애로사항, 안전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부문별 담당임원이 위원장을 맡

고 있으며, 위원(실무자)들은 현장 동료들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이 머리를 맞대 가며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덕분에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간을 들여 고민해야 하는 내용 모두 안건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위원들의 빠른 일처리로 개선 사항들이 현장에 즉각 반영되고 있어 사우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업무환경개선위원회는 최근 추운 겨울을 지나 급격히 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현장 팀 탈의실 냉장고(약 300대) 신규 교체, △현장 휴게실 41개소 냉·난방기 교체, △건물 내 화장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각 팀 탈의실에 비치된 수백개의 개인 탈의함을 새 것으로 교체했으며, 내년까지 교체하지 못한 구형 탈의함을 신형으로 바꿀 예정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 LL게시판 오픈

최근 새롭게 리뉴얼 된 'HD오피스'에 상단 아이콘으로 LL(Lessons Learned)게시판이 신규 론칭했다. LL게시판은 임직원들이 업무를 하며 겪은 다양한 실패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통해 사우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HD현대는 지난해 발표한 핵심가치 중 하나인 '두려움 없는 도전'을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끊임없는 한계에 도전하는 사우들을 적극 응원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한 LL게시판 역시 이와 같은 취지가 잘 반영돼 있다. 사우들은 주제에 관계 없이 크고 작은 실패 사례에 대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게시판에는 도전 내용과 시사점 및 교훈 등을 텍스트로 게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 해당 경험들을 하면서 작성한 여러 자료들을 첨부해 사우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LL게시판의 또 다른 장점은 생각의 폭을 넓혀준다는 것에 있다. LL게시판에서는 HD현대 조선계열사(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직원이라면 서로의 게시판에 작성된 모든 글을 열람할 수 있어, 각기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우들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생각을 교류할 수 있다.



봄이 오면 그리워지는 그 이름, 아산(峨山) 정주영



"봄이 온다. 마음 깊이 기다려지는 봄이 아주 가까이까지 왔다."

해마다 봄과 함께 HD현대 임직원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그리운 이름, 아산 정주영 창업자. 어느덧 23주기를 맞아 판교와 울산, 영암에서는 일제히 창업자의 뜻을 기리고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HD현대, 아산(峨山) 정신 기린다

HD현대가 정주영 창업자의 23주기를 맞아 아산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가졌다.

HD현대는 지난 3월 21일(목)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 5층에서 창업자 흉상 제막식 및 23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HD현대 권오갑 회장, 정기선 부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모사, 흉상 제막, 헌화 및 묵념 순으로 이어졌다.

권오갑 회장은 추모사에서 "기술개발의 요람인 GRC에서 창업자의 흉상 제막식을 갖게 되었다"며 "창업자의 유지를 이어받아 HD현대를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선 부회장은 "포기나 좌절 없이 항상 도전했던 창업자의 행보처럼 HD현대 또한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며 "세계 1위 조선회사를



창우동에 위치한 정주영 창업자의 선영을 찾고 있다. 올해도 지난 3월 16일(토) HD현대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정주영 창업자의 선영을 찾아 참배하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울산·영암에서도 추모 물결

같은 날 울산에서도 창업자가 남긴 고귀한 뜻과 기업가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21일(목) 울산 본관 로비에 위치한 창업자 흉상 앞에서 이상균·노진율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산의 숭고한 창업정신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위대한 기업가 정신을 기리며 헌화했다.



또,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직원 누구나 창업자 흉상 앞에 헌화하며 창업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했다.

HD현대삼호는 이날 오전 영암 본관 1층 로비에서 신현대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업자 흉상 제막식을 가졌다. 행사는 창업자 약력 및 흉상 소개, 흉상 제막, 기념사 순으로 이어졌다.

신현대 사장은 기념사에서 “늘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며 임직원들과 함께 나아가셨던 창업자의 통찰력과 리더십이 사뭇 그리워진다”면서 “임직원 모두 창업 세대의 간절했던 마음과 열정을 회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3사는 아침·점심시간 사내방송(CATV)을 통해 추모 영상을 방영했다. “이 조선소는 탄생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세계 많은 기록을 깨트리면서 성장해왔습니다. 이런 많은 기록은 우리가 간부진들을 위시해서 그리고 일선에서 직접 일하시는 종업원 여러분들의 오랜 인내와 땀 흘린 성과라고 생각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모 영상에는 창업자 생전의 육성, 직원들과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아산과 두터운 친분을 쌓았던 구상 시인이 쓴 추모시 ‘겨레의 뭇 가슴에 그 웅지 그 경륜이’ 등이 담겼다.

넘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주영 창업자 흉상 앞에서 헌화 및 묵념의 시간을 가지면서 창업자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또, HD현대는 창업자의 기일인 이날 하루 동안 추모공간을 마련해 임직원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헌화하며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HD현대 주요 경영진들은 매년 경기도 하남시



새이름, 새출발 HD현대미포 · HD현대삼호

지난 2022년 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룹명을 변경하며 새출발을 알렸던 'HD현대'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이제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은 각각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로 이름을 바꾸고 한층 더 확고해진 그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조선산업 슈퍼 사이클을 선도해나갈 준비를 마쳤다.

▶ HD현대미포

HD현대 조선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이 그룹의 비전과 미래 지향적 사업의지를 담아 'HD현대미포'라는 새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HD현대미포는 지난 3월 25일(월) 울산 본사 한우리회관에서 '제5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에서 'HD현대미포 주식회사(영문명 : HD HYUNDAI MIPO CO., LTD.)'로 바꾸는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운 사명(社名)에는 "인간이 가진 역동적인 에너지(Human Dynamics)로 인류의 꿈(Human Dreams)을 실현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그룹명 HD현대를 붙여, 그룹 비전과 목표를 일치시켰다. 또한, 사명에서 '조선'을 떼어내고 전통 제조업 기반에서 벗어나 탈탄소화, 디지털화 등 변화된 산업 환경에 맞춰 엔지니어링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형관 HD현대미포 사장은 "HD현대가 반세기 전 울산 미포만에서 조선산업을 시작하며 도전과 혁신의 자세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며 "HD현대미포도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창업 정신을 계승하면서 해양 모빌리티 분야에서 미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HD현대삼호

HD현대삼호도 같은 날 목포 현대호텔에서 '제2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에서 'HD현대삼호 주식회사(영문명 : HD HYUNDAI SAMHO CO., LTD.)'로 바꾸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사명 변경은 지난 2003년 현대삼호중공업으로 바뀐 이후 21년 만이다.

HD현대삼호는 지난 2002년 정식으로 그룹에 편입된 후 2003년 '현대삼호중공업'으로 개칭, 세계 4위급 조선소로 부상해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신현대 HD현대삼호 사장은 "전남 영암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 HD현대삼호가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든 최고로 인정받는 선박을 만드는 굴지의 회사로 성장했다"면서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그룹의 정체성과 창업자 정신을 가슴깊이 새겨 꺼지지 않는 슈퍼 사이클의 불꽃을 지속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 HD현대삼호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내·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5개 안건을 가결했으며, 이상혁 HD한국조선해양 원가·회계부문장을 사내이사로, 임기가 만료된 고창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했다.

“한국서 잘 지내니 걱정 마세요”

Mình đang sống rất tốt ở Hàn Quốc nên đừng lo lắng nhé

HD현대 조선 3사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 사우들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들을 위해 현지 가족 초청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 한국으로 보낸 아쉬움을 달래고, 그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베트남 현지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있는 가족들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였다.



HD현대 조선3사 베트남 사우가족 400여명 초청

HD현대의 조선3사는 지난 3월 3일(토)과 5일(화)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와 응예안에서 'E-7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해, 아들과 남편, 아버지를 한국으로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주관 기업인 HD현대미포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HD현대상호 등 HD현대 조선 계열사 및 사내 협력사에서 근무 중인 베트남 출신 숙련기능인력(E-7)들의 가족 400여명과 함께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등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근로자들과 장기간 떨어져 지낸 가족들을 하노이와 응예안 소재 호텔로 초대해 기념품 증정과 함께 점심을 제공하고, 문화공연 관람 지원 등을 통해 가장(家長)을 한국으로 떠나보낸 가족들의 그리움을 달랬다.

한국생활 모습 담긴 '영상'과 '화상 통화'로 감동 선사

특히 행사에서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생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상영하고, 즉석에서 가족 간의 정담을 나누는 '영상 통화'로 큰 감동을 선사했다.

HD현대미포 건조부에 근무 중인 전반트엉(TRAN VAN TRU-ONG) 씨의 어머니인

응우엔티짚(NGUYEN THI TRAM) 씨는 “영상 속에서 아들이 웅장한 선박을 건조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자랑스럽고, 일과 후에도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도 취재진을 파견해 행사를 주관한 HD현대 직원을 비롯해 E-7 근로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빠른 일처리, 완벽 서비스! 명품선박 건조 위한 생산활동 지원

“여기 앞에 카고트럭 보셨어요? 우리는 그 차를 ‘172 물류트럭’이라고 부릅니다.

빠른 일처리(172)를 위해 달려간다는 뜻과 맡은 업무는 늘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2172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우기 쉽죠?”





다양한 장비 운용으로 원활한 생산 뒷받침

김순일 팀장과 54명의 팀원으로 구성된 HD현대미포 공사지원부 장비운영1팀은 생산현장 곳곳에서 트럭과 크레인 등을 이용해 생산활동에 필요한 각종 부재나 기계장비, 치공구 등을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비운영1팀은 운용하는 장비에 따라 172반, 육상장비반, 지브크레인1, 2반 등 모두 4개반으로 구성돼 있다.

172반은 '172 물류트럭'이라 불리는 '카고 크레인 트럭'을 담당한다. 172 트럭은 적재함에 크레인이 장착된 차량으로, 일반 트럭이 옮기기엔 무겁고 부피가 큰 자재, 장비, 치공구 등을 현장 적재적소에 배송하고 있다.

육상장비반은 트레일러, 지게차, 육상크레인 업무를 맡고 있다. 지게차는 3톤에서 37톤까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육상크레인은 크롤러크레인, 하이드로 크레인, 타이어 크레인 등이 있다.

지브크레인반은 2개 반으로 나뉘 2, 3안벽에 위치한 5기의 지브크레인을 활용해 마무리 의장작업 중인 선박 위로 각종 기자재와 장비 등을 탑재하는 등의 일을 맡고 있다.



공정만회 위해 팔 걷어붙이며 노력

“최근 매일 들어오는 지브크레인 업무량은 30시간이 넘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러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라며 김순일 팀장이 말문을 연다.

크레인 작업은 평소 전날 신청된 업무를 배정하지만, 요즘과 같이 공정이 분주한 상황에선 당일 현장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따라서 1대의 크레인을 두고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작업요청이 들어올 때가 비일비재하다.

이럴 때면 무엇보다 장비운영1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요청된 작업들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전체 생산 공정을 감안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만 한다.

더구나 1대의 크레인이 수행해야 할 작업은 많은 경우 하루 100회 가량이나 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조금의 시간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다.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많은 작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제한된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더 원활한 생산공정을 위해 팀원 모두가 합심하여 업무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평균 근속 20년 넘는 ‘다재다능’ 베테랑

장비운영1팀은 막내인 서경중 기사가 입사 18년차일 만큼, 평균 근속 20년 이상의 경력을 자랑한다. 여기에서부터 팀원들은 기능장에서부터 특수면허 등 평균 5개가량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관록과 전문성을 겸비한 팀원들이 있기에 장비운영1팀은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다. 동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기본이며, 야드 상황에 따라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많은 차량이 도크, 안벽, PE장 및 사외공장 등 매일 전 야드를 누비기에 유류 사용량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비운영1팀은 불필요한 장비 예열은 자제하고 급출발·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한 비용절감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172 물류트럭과 지게차의 경우 구역별 배차 제도를 실시해, 인근에 위치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현장에 보냄으로써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빠른 일처리(172)를 위해 오늘도 쉴 틈 없이 생산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명품선박 건조에 이바지하는 이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낸다.



“봄’을 여는 스포츠, 함께 하면 더욱 즐거워”

추위가 가고 살랑살랑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다.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를 맞아, 각 사내 동호회에서는 야외활동을 재개하며 활력을 되찾고 있다. 봄 햇살과 같이 싱그럽고 건강한 도전을 원한다면, 스포츠 동호회에 눈길을 돌려보자.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각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스포츠 동호회들을 소개해본다.

HD현대중공업 - 서핑 동호회 '하이웨이브(HI-WAVE)'

짜릿함과 힐링이 공존하는 바다

대자연의 에너지를 느끼며 바다가 있는 곳 어디서나 파도를 시원하게 가르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크고 힘 좋은 파도에 몸을 맡기며 짜릿함을 즐기기도 하고, 바닷속으로 몸을 던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도 한다. 따스한 햇살이 슬며시 얼굴을 내미는 봄은 겨울잠을 자던 서퍼들이 활동을 위해 기지개를 켜는 계절이다.

'하이웨이브(HI-WAVE)'는 HD현대중공업 서핑 동호회로, 2016년 개설돼 현재 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기모임은 상하반기 1회 정도 실시하지만, 상시 활동이 많은 편이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연차를 써가며 시간

이 맞는 회원끼리 삼삼오오 모여 서핑을 즐긴다.

흔히 서핑을 여름 스포츠라 생각하기 쉽지만, 하이웨이브가 주로 활동하는 동해안은 봄·가을·겨울에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친다. 하이웨이브 회원들은 겨울엔 수온에 맞는 기모 슈트를 입고 서핑을 즐기기도 하고, 인도네시아·필리핀·대만·호주 등 따뜻한 나라로 서핑트립을 가기도 한다.

여름엔 남해안과 제주도의 파도가 좋아 남부지방을 자주 찾

며, 여름휴가 때는 질 좋은 파도를 실컷 즐길 수 있는 발리로 함께 떠난다.

하이웨이브 김봉근 회장이 꼽는 서핑의 가장 큰 매력은 파도를 가르며 '짜릿함'이다. 자연 앞에 한없이 무력한 인간이,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기고 즐기는 경험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핑은 거센 파도를 타는 익스트림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휴식을 주기도 한다. 김 회장은 “보드에 올라선 순간만큼은 온갖 잡념과 걱정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며 “시원하게 깨지는 파도를 보며 물멍을 즐기다 보



면 스트레스도 같이 씻겨 내린다”고 말했다.

물론, 서핑은 진입 장벽이 있는 스포츠다.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다. 또, 기본적인 체력이 너무 부족한 경우 초반에는 즐거움보다 힘겨움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난관을 이겨 내고 첫 테이크 오프(Take-off : 보드에서 일어나는 동작)를 성공함과 동시에 밀려드는 커다란 성취감을 느껴보면, 서핑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소중한 경험

을 함께하고자 하이웨이브는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본실력을 갖추도록 돕고, 함께 서핑트립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핑은 캠핑과도 잘 어울린다. 서핑을 즐긴 후 캠핑을 통해 허기진 배를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고, 서핑 버디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연과 물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이웨이브와 함께 파도에 몸을 맡기는 서핑에 올해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회원가입 문의 회장 010-3077-8690 / 총무 010-8729-9047

HD현대미포 - 야구 동호회 '블루웨이브(Blue Wave)'

울산을 휩쓴 천하무적 야구단

지난 3월 17일(일) 울산성암야구장에서 열린 '울산 남구 야구 소프트볼협회 링크고래부 야구리그 3차전'. HD현대미포 소속 야구 동호회 '블루 웨이브 (Blue Wave)'와 강력한 라이벌 팀 간의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가 펼쳐졌다. 블루웨이브의 공격 기회, 2사 2루의 득점 찬스 순간 블루 웨이브의 더그아웃에서 "투 아웃이다. 무조건 뛰어"라는 콜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고, 이후 타자가 담장을 때리는 2루타로 득점에 성공했다.



지난 2001년 결성된 블루웨이브는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야구 동호회다. 야구에 흥미를 느낀 HD현대미포 직원 10여 명이 직접 공을 던지고 방망이를 휘두르고 싶은 마음에 삼삼오오 모여 결성했다.

이후 블루웨이브는 HD현대미포 직원은 물론, 형제가족과 동구·남구 거주자 등으로 회원가입 대상을 넓혀 현재 38명이 활동하는 지역 최강 직장인 야구팀으로 자리매김했다.

블루웨이브는 울산지역 리그에서만 우승 10회, 준우승 5회를 차지했으며, 울주군수기배, 남구청장기배 등 각종 토너먼트대회에 나가 우승컵을 휩쓸고 있다.

30대 초반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우들

이 모인 블루웨이브는 꾸준히 경기를 치르며 끈끈한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 이들은 2월 말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 치러지는

정규리그 16경기를 비롯해 각종 토너먼트 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며, 비시즌에도 격주 단위로 주말마다 울산생활과학고 운동장에서 훈련을 소화하며 경기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야구공과 배트, 포수장비 등은 무료로 제공된다. 신규 회원들에게는 야구선수 출신인 HD현대미포 김왕창 사우를 비롯한 실력파 선수

들이 투구 폼과 타격자세 등을 세세히 가르치며 실력 향상을 돕는다.

회원들 가운데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뛰어난 타격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가 유독 눈에 띈다. 지난 2016년 HD현대미포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동호회의 핵심 역할을 맡는 김중대 선배 사우는 재직 당시 야구를 좋아했지만 선뜻 도전하지 못해 '버킷리스트'로만 간직해왔다고 한다. 10여 년 전 퇴직을 앞둔 지난 2015년 마침내 블루웨이브에 가입했고, 현재 68세의 나이에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야구의 재미와 젊음을 느끼고 있다.

이 밖에도 형제지간인 HD현대미포의 조정래 책임매니저와 HD현대중공업의 조성국 책임매니저도 투수로서 안정적인 경

기운영을 리드하는 주축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유승우 블루웨이브 회장은 "9명의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며 스틸 넘치는 승리를 거머쥘 때 느끼는 짜릿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며 야구에 도전해볼 것을 권했다.

회원가입 문의 회장 010-4555-3242 / 총무 010-3933-3741

HD현대삼호 - 축구 동호회 '불사조'

운동장 누비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기지개를 켜는 4월, 춥고 삭막했던 겨울 내 푸른 잔디가 땅 위에 돋아나기만을 기다렸던 이들이 몸을 추스르고 신발 끈을 동여맨다.

HD현대삼호를 대표하는 최고의 축구 동호회, '불사조' 소속 회원들은 4월의 따스한 날씨에 맞춰 개방될 대불천연잔디구장을 예약하고 미리 계획한 각종 훈련과 경기 일정을 소화할 생각에 활력이 넘친다.

지난 1999년 결성돼 25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불사조는 현재 50

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명문 축구 동호회의 명맥을 유지해온 50~60대 베테랑 사우들부터 신입의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20~30대 젊은 사우들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다른 업체 직원들까지 가세하면서 불사조의 불꽃 기열이 한층 더 타오르고 있다.

올해 회장직을 맡게 된 최호철 불사조 회장도 더 많은 사우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며 건강과 친분을 다지며 동호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각오를 불태웠다. 조선산업 호황기를 맞아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불꽃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게,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한 신규 회원 모집에 동호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펼치고 있다.

회사 내 다른 동호회 축구팀들과의 리그 경기는 물론, 외부 팀과의 경기도 자주 가지며 실력을 향상하고 있다. 최 회장이 꿈은

최대 라이벌은 목포한국병원 축구팀. 수년 간의 맞대결에서 앞치락뒤치락하며 막상막하의 실력으로 승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장을 찾는 선배 사우들도 많다. 목청으로 상대 팀 벤치를 압도하는 응원과 함께 노련한 코칭으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기만큼 훈련에도 진심이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는 멀리 훈련을 떠날 정도로 체계적으로 운동에 임하고 있다. 지난 3월 마지막 주 주말에는 제주도로 전지훈련까지 다녀오며 올해 왕성한

활동을 예고했다.

평소 모임을 자주 가지며 친분도 지속해서 쌓고 있다. 훈련이나 경기 후엔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하며, 야유회나 여행도 즐기고 있다.

동호회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안전이다. 회원들은 항상 경기 시작 전 '다치지 말자'를 구호로 외치며 오늘 하루 부상 없이 공을 찰 수 있기를 기원한다.

최 회장은 "건강하고 재미있게 공을 차지고 모인 동호회에서 다치는 것만큼 불상사가 없다"면서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다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가꿔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회원가입 문의 회장 010-2608-3120 / 총무 010-4032-3207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꿈꾸며”

“안전은 아는 만큼 보인다” 38년간 HD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고, 현재는 사내협력사 다인안전산업의 대표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다인안전산업 정우돈 대표의 마음가짐이다.

다인안전산업, 정우돈 대표

정 대표는 HD현대중공업에 1978년 7급 기사로 입사했다. 지난 2016년 38년간의 회사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2017년 창립한 사내협력사 다인안전산업의 대표로 회사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HD현대중공업 재직 당시 플랜트 설비 제작, 조선소 이동형 유틸리티분야, 비계 조직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조물해체, 비계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다인안전산업을 창립했다.

다인안전산업은 현재 조선해양사업부 LNG공사2부에 소속돼, LNG선 트러스

물류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인안전산업이 담당하는 비계 시공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

정 대표는 평생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1978년 중졸 출신으로 입사했던 그는, HD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동안 현대공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울산과학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학습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창업 이후엔 자신의 사업과 연관된 학업을 시작해 울산대학교 공학 석사를 거쳐 올해 선문대학교 산업공학과 안전전공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정 대표는 최근 3월 국가에서 선정한 ‘이달의 기능한국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안전 전문가로서,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다

“안전은 아는 만큼 보인다” 정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지론이다. 회사 이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의미가 각별하다. 다인안전산업의 ‘다인(多人)’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라는 의미이고, ‘안전산업’은 사람이 재산이며 다치지 않는 직장이 되게 하려는 바람이 담겼다.

그의 지론은 창업 이후 행보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회사를 차리며 그는 조선 비계, LNG운반선 화물창의 단열재 작업 등의 국가직무역량표준(NCS)을 개발했고, 삽화가를 채용해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근로자들도 쉽게 알아보도록 표준작업지도서를 만드는 등 모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노력은 회사 성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 2020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2021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발표 전국 대상, 2023년 안전보건교육훈련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았다. 또, 2023년에는 HD현대중공업 기술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전국 5개 업체만 선정되는 ‘HD현대중공업 가족기업’에 선정됐다.

다인안전산업은 지금도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작업자들이 언어 장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기반 동시 통역기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안전은 현장의 모든 인원이 같은 생각을 가지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기능한국인’ :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실무 숙련기술경력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숙련자를 매달 한 명씩 선정하는 제도

교과서에서 익힌 역사 문화를 여기, 동학관에서!

도심 외곽 자연으로 둘러싸인
향토 역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
자녀와 함께 역사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곳,
흙길을 밟으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따뜻한 봄날, 이 모두를 할 수 있는
'수운 최제우 유학지' 동학관을 찾았다.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

동학(천도교)은 1860년 최제우(1824~1864) 선생이 창시한 민족 종교로, 조선 말기 세도정치와 탐관오리(貪官汚吏)의 수탈과 외세의 침입에 저항하여 세상과 백성을 구제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기본 교리로 삼아 민중으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이처럼 동학은 모든 사람이 고귀하니 존중과 평등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최제우 선생이 순교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돼 1894년에 일어난 농민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놀이와 휴식에 스며든 역사

울산광역시시는 지난 1997년 동학 창명의 계기가 되는 동학관 일대를 역사문화보존지구로 고시하고 기념물 제12호로 지정했다. 이곳의 옛 지명, 역시바윗골은 최제우 선생의 처가가 있던 곳이다. 최제우 선생의 본가가 있던 경주 용담골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이곳에 거처를 마련했다고 전해진다. 최제우 선생은 생을 마감하기 10년 전까지 이곳에 세 칸의 초가를 짓고 머물면서 수도생활을 했다.

울산광역시시는 문화관광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일환으로 유허비 건립과 유허지 초가 복원 작업을 펼쳤다. 그 중심에 지상 1층 규모의 동학관을 건립하고 주변에는 산책로를 조성했다. 동학관은 동학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과 교육 및 체험학습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전시관에는 최제우 선생이 쓴 경편들을 모은 '동경대전'이 있다. 아울러 전시관 안에는 '수심정기(守心正氣)'라는 공간이 있는데, 마음을 회복하여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를 담은 곳이다. 방문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각종 동학 자료를 이용한 숨은그림찾기가 인기가 있다.

독립운동과 방정환에도 선한 영향 미친 동학

독립운동가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이 천교도인으로, 이는 동학이 농민운동뿐만 아니라 3·1독립만세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언양의 3.1 만세운동이 대표 사례인데, 언양 장날에 수천 명의 민간인들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독립만세 운동을 외친 역사도 전시실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시관에는 '소파 방정환과 어린이 운동'이라는 코너가 있다. 이곳에는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어린이 운동을 펼친 기록이 있다. 방정환은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도록 어린이 운동과 독립정신 고취에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당시 그는 병영 소년회 행사에 초청돼 울산을 찾았으며, '어린이' 잡지에 울산 소식을 신기도 했다.

초당 뒷마루에 걸터앉아 나누는 대화

동학관에는 수선화가 많다. 고결한 사랑을 간직했다는 꽃말이 최제우 선생과 참 잘 어울린다. 이외에도 도심에서는 자주 접하기 힘든 야생의 꽃과 나무들이 많아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다.

방명록을 펼쳐보면, "천도교의 탄생을 동학관을 통해 알고 자녀들과 함께해서 좋다", "조용한 곳에서 휴일의 여유로움을 즐긴다", "책에서 보던 역사의 현장을 직접 보고 간다", "울산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자랑스런 곳이다, 내가 사는 울산이 자랑스럽다", "천도교의 성지 및 역사 관광지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동학관에는 '최제우 나무'라고 불리는 회화나무, 마을의 약수터였던 수운 샘터, '최제우 유허지' 이름을 딴 긴 의자, 유허비 주변 잔디밭과 이끼 핀 땅, 초가에 있는 무쇠 솔과 아궁이 등 최제우 선생이 살았던 그 시절 감성을 그대로 구현해냈다. 또 이곳에는 어느 등산회에서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가져온 물과 흙을 혼합해 심은 '통일나무'로 불리는 무궁화 두 그루도 있다.

다양한 볼거리에 도란도란 방문객들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노란 산수유와 수선화가 즐비한 동학관의 곳곳을 자박자박 걸어보자. 그리고 역사속의 그때와 최제우 선생을 비롯한 우리 역사의 위인들의 뜻을 되새겨 보면 어떨까?

취재 최선자 주부리포터(HD현대중공업)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즈넉한 산사 서운암

1천300여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통도사,
하늘과 산이 맞닿은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통도사 산내에는 저마다의 특색을 지닌 19개의 암자가 있는데,
그중 으뜸은 영축산의 아름다움을 품은 볼거리 가득한 서운암이다.

※암자: 큰 절에 딸린 작은 절, 또는 승려가 임시로 거처하며 도를 닦는 집

오랜 세월 간직한 소박한 아름다움

서운암은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인 통도사 내에 있는 암자로, 1346년 충현대사가 창건하고 성파스님이 다시 중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운암은 19개의 암자 중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통도사 주차장을 지나 약 1.5km 정도 산길을 따라 더 올라가면 작은 연못 옆으로 온화한 얼굴의 불상 삼천개가 모여진 법당을 마주하게 된다. 얼핏 보기에도 삼천개가 넘는 불상들은 각기 다른 표정과 포즈를 취하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운암의 삼천불전 법당 옆 옹기종기 모인 수천 개의 향아리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스님들이 직접 담그는 약된장, 막장, 고추장 같은 다양한 장류들이 담겨있다. 성파스님은 1980년대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변화하면서 주택에서 사용하던 향아리가 골목골목 버려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생활문화유산인 장독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이에 성파스님은 버려진 향아리 중 50년 이상 된 큰 전통 향아리 위주로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유약을 발라 만든 전통 옹기만이 공기가 잘 통하고 납 성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5천여개의 향아리는 스님들이 정성껏 만든 전통식 된장과 간장을 담는 아름다운 옹기가 됐다.

이색 볼거리 천국 서운암

서운암은 봄에 특히 아름답다. 암자 주변에는 금강화를 비롯한 100여 종의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 매년 4월이면 들꽃 축제인 '전국 문





학인 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어서 야생화를 보기 위해 서운암을 찾는 이들이 많다. 올해 축제일은 오는 4월 27일(토)로 들꽃 구경과 함께 깃발시화전, 꽃문학 시상식, 문학강연, 백일장,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어 봄나들이 온 가족들에게 단연 인기다.

서운암에 방문한다면 탁 트인 뷰가 멋진 장경각을 빼놓을 수 없다. 장경각은 서운암 법당에서 400m 정도로, 제법 가파른 오르막이라 어르신 또는 아이와 동반한다면 차로 이동할 것을 추천한다. 이곳은 도자기 판에 새겨진 반야심경 등 불교 경전 16만 판을 보존하고 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목판이어서 앞뒤로 경전을 새겨 8만 개가 되지만, 장경각의 도자는 앞면에만 새기다 보니 경전의 수가 총 16만 개다.

장경각의 앞마당에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의 실물 크기를 그대로 재현한 나전옷칠 반구대 암각화를 만날 수 있다. 암각화가 풍화작용에 의해 마모되고 소멸돼 형태의 보존이 어려운 것을 안타깝게 여긴 성파스님의 아이디어로 암각화에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옷칠을 한 것이다. 이 수증 전시물은 사람, 거북이, 호랑이, 고래 등으로 구성돼 있고, 많은 방문객들의 포토존이 되어주고 있다.

일상에 찾아온 여유

서운암을 관람하다 보면 뜻밖의 친구를 만나기도 한다. 화려한 색채를 뽐내며 자유롭게 서식하는 공작새가 그 주인공이다. 동물원이 아니면 평소 자주 보기 힘든 공작이 눈앞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남녀노소 폭 빠져든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누구 하나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일상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경각 앞에 놓인 넓은 평상 위에 앉아 영축산 정상을 바라보며 잠시 명상에 잠겨보는 것도 좋다. 서운암 감원 서승스님은 "서운암은 자연과 어우러져 수행과 정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불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지치고 힘들 때 서운암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취재 정은주 주부리포터(HD현대중공업)

오시는 길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개방시간
06:30~17:30
입장료 무료
문의
☎ 055-382-7094



과학, 어디까지 즐겨봤니?



'어린이 전용 과학관' 국립어린이과학관

국립어린이과학관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 만든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과학관이다. 감각놀이터, 상상놀이터, 창작놀이터로 구성돼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감각놀이터는 모래를 통해 소리의 파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블록을 활용해 징검다리를 만드는 등 아이의 감각과 인지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상상놀이터에서는 자연과 생물을 탐구하고 기계의 원리와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다.

마지막 창작놀이터는 코딩,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직접 제작해보며 체험하는 공방으로 근래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다.

이 외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과 바다 생물을 4D로 체험해보는 영상관과 천체망원경으로 태양과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어린이 천체관측소가 있다.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 의 ☎ 02-3668-3350

개방시간 9시 30분 ~ 17시 30분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



로켓 덕후 다 모여라!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속하는 섬인 나로도의 2개의 섬 중 외 나로도에 위치해 있으며 나로 우주 센터와 나로호의 이름이 이 섬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 위성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는 발사체 발사를 위한 발사대 및 위성, 발사체 조립 시설, 발사 통제동, 추적 레이더 등 우리나라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 설비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우주과학관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로켓과 인공위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나로호의 실물 크기 모형도 관람할 수 있다. 우주과학관은 우주에 관한 기본원리, 로켓, 인공위성, 우주탐사 등을 테마로 구성된 상설전시관으로 32종 작동체험 전시물을 포함해 총 90여종의 전시품을 갖추고 있다. 상설전시관을 비롯해 기획전시실, 3D 입체영상관, 4D 돔영상관, 야외전시장 등 우주과학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시설이 준비돼 있어 우주과학 관련 교육 및 체험 학습이 가능하다.

주 소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하반로 490

문 의 ☎ 061-830-8700

개방시간 10시 ~ 17시 30분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전국 곳곳에 있는 과학관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강연이 펼쳐진다.
신비로운 '과학'을 테마로 한 과학관에 방문해 세상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자.



'과학의 도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에는 과학을 흥미롭게 풀어낸 공간이 많다. 그중 국립중앙과학관은 주 전시관인 과학기술관을 비롯해 자연사관, 인류관, 창의나래관, 어린이과학관, 꿈아띠체험관, 천체관, 천체관측소, 미래기술관, 생물탐구관, 야외과학놀이터 등을 갖춘 우리나라 대표 과학관이다. 기초과학부터 미래 과학기술에 이르는 과학 전반을 다양한 전시와 체험으로 아이들이 알기 쉽게 소개한다. 미취학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눈높이에 맞춘 과학 체험 공간을 운영해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 과학관 내 시설은 대부분 무료지만 창의나래관과 천체관, 꿈아띠체험관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주변에는 암석과 광물 등 지구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지질박물관, 화폐의 역사와 숨겨진 과학을 만날 수 있는 화폐박물관, 그리고 발명가처럼 사고하고 체험하는 창의 발명체험관 등도 위치하고 있어 과학여행의 최적화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 소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 국립중앙과학관

문 의 ☎ 042-601-7979

개방시간 9시 30분 ~ 17시 30분 (전시공간별 상이)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



풍요로운 바다의 매력, 울진 국립해양과학관

경북 울진에는 바다를 입체적으로 배우고 신나게 체험할 수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이 있다. 이곳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놀이와 결합한 덕분에 가족 여행객에게 사랑받는다. '하나로 흐르는 바다' 전시실에서는 바다가 해류로 인해 순환한다는 사실을 '러버덕의 해류 여행' 이야기로 풀어낸다. 또 '미지의 바다 도전하는 인류' 전시실에서는 태블릿으로 공중에 매달린 잠수함 '트리에스테호'를 비추면 증강현실(AR) 영상이 등장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과학관의 화룡점정은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바다마중길393과 바닷속이 생생하게 보이는 바닷속전망대다. 전시실마다 상주하는 해설사가 친절하게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양과학 영상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3면 영상관, 오는 5월 운영을 재개하는 독도에서 남극까지의 탐험 이야기를 담은 VR어드벤처 등이 있다.

주 소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8

문 의 ☎ 054-780-5008

개방시간 9시 30분 ~ 17시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

정리 **김숙향** 주부리포터(HD현대중공업)



풍부한 해양자원으로 치유와 힐링을 동시에!

나른한 봄날, 모래의 울음소리가 심리 밖에서도 들린다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완도로 떠나보자.

딸라소풀

건강과 힐링의 섬, 완도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인 완도는 경치만 좋은 곳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고 산소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인정받은 건강한 섬이다.

일년 내내 온화한 기후를 보이며 남해안을 타고 흐르는 난류로 해수 온도 역시 따뜻한 이곳에 지난해 11월 완도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었다. 단순히 휴양을 위한 관광지를 뛰어넘어 바다의 자원을 이용한 재활과 치유의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간편하게 즐기는 휴식과 안정

완도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로 해양자원을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유체험실이 1층과 2층에 마련돼 있다.

1층에는 가장 큰 규모의 해수 풀인 딸라소(헬라어로 바다를 뜻함) 풀을 포함해 명상 풀, 해수 미스트, 머드 테라피, 해조류 거품 테라피 등 총 5가지의 테라피실이 있다.

명사십리에서 끌어올린 해수를 정화시켜 채운 딸라소 풀에서는 수중 노르딕 워킹 등 각종 수중 운동과, 공기 거품이 나오는 수압 마사지를 통해 전신의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통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는 명사십리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

는 테라스에 나가 파란 하늘과 하얀 파도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찍는 것이 필수 코스로 자리잡았다.

해수 미스트 테라피실에서는 해수를 분사하여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할 수 있는데, 이는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 1회 사용 제한이 있는 명상풀도 인기가 좋다. 몸을 물에 띄운 상태로 강사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칭과 수중 명상을 하며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아늑함에 어느새 스르륵 잠에 빠져드는 것이 묘미다.

해조류 알갱이가 들어간 천연머드를 이용한 머드 테라피, 해조류에서 추출한 입욕제에 비파향을 더한 거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거품 테라피는 힐링과 피부미용은 물론, 테라피실에



해조류머드랩핑



해수풀



바스 테라피

들어가는 누구나 어린아이처럼 거품을 던지고 물히며 웃고 즐기는 놀이 장소가 된다. 5개 테라피실 전체 이용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전문 테라피로 심층 건강 관리까지

2층 건강 측정실에서는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11개의 프로그램 중 프리미엄 요금 선택 시 바스 테라피, 음악 테라피, 컬러 테라피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8가지 테라피실 중에서는 3가지를 선택 가능하다.

향기 테라피실에서는 유자향을 맡으며 마스크팩과 두피 지압을 받을 수 있어 머리를 맑게 하고 두통 해소에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는 따뜻한 돌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스톤 테라피실로 걸음을 옮겨보자. 스톤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과 적당한 압력을 느끼다 보면 시원하다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조금 더 후끈한 열감을 더해주는 해조류 머드 랩핑실의 테라피는 근육 통증완화에 효과적으로, 2층에서도 특히 인기다. 그 외 스팀샤워, 비쉬샤워, 저주파 테라피, 소리 테라피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완도해양치유센터의 독보적인 전문 프로그램인 '왓츠(WAT-

이용요금

· 기본프로그램(1층)	대인 36,000원 / 소인 26,000원
· 프리미엄프로그램(1층과 2층)	대인 125,000원 / 소인 80,000원
· 전문수중 재활프로그램	1:1 90,000원 / 2:1 70,000원 / 3:1 50,000원

이용방법

- 완도해양치유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예약가능하다.
- 이용시간은 10:00~19:00이며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이용이 불가하다.
- 시설 이용 시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 착용이 필수이며 현장 대여 가능하다. (아동용 수영복은 대여 불가)
- 기본프로그램 이용 시 입장 후 바로 명상풀을 예약하는 것이 추천된다. 30분에 최대 6~7명 정도만 체험이 가능해 바로 대기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찾아가는 길 전남 완도군 명사십리61번길 94

SU)'도 있다. 왓츠는 수(水) 치료의 한 형태인 물(Water)과 일본식 지압 마사지(Shiatsu)의 합성어로, 따뜻한 물속에서 몸을 띄우고 스트레칭과 지압으로 몸을 이완시켜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수중재활 운동이다.

몸 회복을 2~3개월 당겨줄 만큼 빠른 효과가 장점으로, 완도해양치유센터의 왓츠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또 해양치유센터 주변으로 기후치유센터와 문화치유센터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해변 노르딕 워킹, 해양 필라테스 등 명사십리 곳곳을 누비며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취재 **주경미** 주부리포터(HD현대삼호)



컬러테라피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고 “아산헬스케어센터로 놀러오세요~”

울산과학대학교(총장 조흥래)가 지난 2월 동부캠퍼스에 실외 골프 학습장과 재활교육센터 등을 갖춘 아산헬스케어센터를 완공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동부캠퍼스의 기존 스키 교육장 부지에 약 8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산헬스케어센터 공사를 진행



했고, 3월 27일(수)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신축한 아산헬스케어센터는 건축 면적 1천10㎡(305평), 연면적 2천836㎡(858평)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지상 2층~4층에는 각 25타석씩 총 75타석의 실외 골프 학습장이 있다. 깔끔하게 정비된 골프 학습장에는 출거나 더운 날에도 쾌적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타석마다 냉난방 시설을 구비했다. 이외에도 △스윙 분석실 △퍼팅장 △GDR (실내 골프 학습장)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춰 골프 학습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아산헬스케어센터 3층에는 재활교육센터를 구축해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을 앓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수치료·작업치료·운동치료·물리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재활교육센터를 대학의 간호학부·물리치료학과·치위생학과·식품영양학과·스포츠재활학부·사회복지학과와 연계하고, 고령인구 맞춤형 통합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전문 골프 강습·재활치료, 주민들에게도 개방

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골프 강습과 재활치료를 위

한 준비도 끝났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올해 3월 두 분야의 전문가 4명을 특임교수로 뽑았다. 골프에는 임종석(호주 ASIA-GA 프로, USGTF 프로), 김세연(KLP-GA 프로), 이동엽(KPGA 프로) 교수, 재활에는 김보연(동의병원, 센텀재활의학과, 청남의료재단, IAME트레이닝센터

등) 교수를 채용해 전문적인 지도를 맡겼다.

이용 안내

-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01
- 운영시간 6시~23시 (21시 30분 입장마감) / 동절기(12월~2월)는 별도 공지
- 평생교육원 단체강습
 - 월/수/화/목(오전·오후·야간반) 수강생 모집 : 매월 중순 ~ 말일
 - 수강료(8회 강습 + 8회 자율학습, 총 16회 진행), 월 20만원
 - 반당 수강인원 10명 이내(매월 말 또는 초 신규수강생 대상 OT 진행)
 - 골프교육 특강 등 우선 참여 가능
- 골프학습장 이용요금
 - 일일학습권 : 1회(90분) 2만원
 - 정기학습권 : 10회(1개월 기한) : 15만원
 - 20회(3개월 기한) : 25만원
 - 60회(6개월 기한) : 65만원
 - 새벽반(6AM~9PM) 1개월 : 14만원
 - 선수육성반(중·고등학생) 1개월 : 30만원
 - 라커이용요금 : 월 1만 5천원, 보증금 3만원(현금)
- 문 의 ☎052-230-0654



육각형 인간의 시대

최근 SNS인기 검색어 중에는 '#육각형○○'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육각형? 무슨 말일까? 육각형은 종종 '완벽'이란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두 다 인정받고만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담쌓기,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육각형인간은 육각형 놀이를 통해 완벽한 '최고의 자아'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담쌓기'를 통해 아무나 육각형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노력으로는 이루기 힘든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직업이나 높은 월급은 더 이상 육각형 인간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것, 어쩌면 운명처럼 타고나야 하는 것까지 완벽히 갖춰야 육각형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집안'은 육각형인간이 갖춰야 할 대표적인 덕목이다. 최근 유행하는 '올드머니룩'도 타고난 집안에 대한 사람들의 선망을 담고 있다. 올드머니는 집안 대대로 부자인 기득권 상류층을 일컫는 단어로, 신흥 부자를 뜻하는 뉴머니와 구별된다. 승마나 요트처럼 부유층이 즐기는 스포츠와 결합된 룩이나 미국 명문 사립학교 교복에서 유래한 프레피룩이 올드머니룩의 범주에 포함된다.



해외 유명 팬션쇼에 초대받았는지 등에 따라 계급이 나뉜다.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요즘은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직업 선호 트렌드다. 의사나 변호사, 선생님과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선망 받는 직업군이었다. 요즘엔 의대 하나로 귀결된다. '의사'라는 직업이 가장 안정적이고 평균 수입이 높은 직업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점수와 순위'가 SNS에 어떻게 올라가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인 20대 남학생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세계 순위 1위인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이미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도 않을 다른 대학원에 굳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입학원서를 내고 합격증을 받아 이를 SNS에 게시했다. 이유는 남들에게 재대로 평가받고 싶어서였다. 매일 업로드하는 게시글이 곧 나의 성취를 남들에게 공유하고 평가받는 일종의 개인 포트폴리오가 된다.

수치화하기, 인정받기 위한 삶

또 이들은 '수치화하기'를 통해 모든 가치를 돈과 숫자로 평가한다. 내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점수이고 몇 등정도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자 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육각형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비교해 일렬로 줄을 세우는 '랭킹화'가 필수다. 요즘은 유명 아이돌들을 유명 브랜드의 앰배서더로 앞다퉈 선정하면서, 팬들 사이에선 때 아닌 계급론 논쟁이 벌어졌다. 어떤 유명 브랜드의 앰배서더로 선정되느냐가 인기를 가능하는 척도가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앰배서더로 활동하는지 혹은 국내 한정인지, 화장품 부문만 담당하는지 혹은 패션 부문까지 담당하는지,

육각형에 가려진 진짜 '나'

'육각형인간'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강박적인 완벽함의 반향으로 작용한다. 육각형인간 트렌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흔들리는 사회를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의 활력이자 절망이면서 하나의 놀이다. 사람들이 육각형인간을 부러워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육각형인간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 가장 나다울 때 행복한 것이 아닐까? 비록 그것이 육각형의 완벽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정리 김숙희 주부리포터(HD현대중공업)
참고도서 **트렌드코리아 2024**

자기사랑과 타인이해의 비결, 긍정적 나르시시즘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 쇼펜하우어 -



자기애, 나르시시즘이란?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 호소하는 심리적 문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가족 간의 갈등, 인간관계의 어려움, 어린 시절 겪은 상처, 상사와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나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 같다, 자존감이 낮아 내가 못나고 늘 부족한 사람 같다, 화가 나는데 생각해 보면 모두 내 잘못 같다며 자책하고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와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문제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명확한 수치로 계량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또 들여다본들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안다는 것이 그토록 어렵기만 할까요? 사실 앞서 열거한 심리적 문제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인정 받고 사랑 받고 싶다는 욕구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이 두 가지 심리적 문제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나르시

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이란 자기애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존중 받기를 바랍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정신적 갈증이나 결핍 없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건강하고 긍정적이게 되며,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커 집니다.

반대로 나르시시즘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결핍으로부터 오는 갈증을 채우지 못해 흔들리고 상처받게 되며,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나 스스로 나르시시즘이 최적의 상태에 머무르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설명할 때 시인 빌헬름 부슈의 치통을 예로 듭니다. 어금니가 아프면 그 좁은 구멍 안에 영혼이 집중되는 것이 인간이며, 그 순간만큼은 지구 반대편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해도 내 치통만큼 끔찍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닌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영어로 'ego-centricity'라 표현합니다. 이는 내 자



아가 곧 중심,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반발하기보다는, 인간이란 원래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배려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르시시즘은 생존의 욕망에 비교될 수 있는 강한 열정'이라고 기술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즘에 의한 육체적 욕구, 관심, 욕망 등이 강한 열정과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이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나르시시즘이 극단적으로 발현될 경우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힘을 키우자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이 발생할 경우 인간은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바로 나르시시즘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절망이나 상실을 경험할 때 네 단계의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로, 두려운 것을 보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듯이 정신적으로도 눈을 감아 버리게 됩니다. 심할 경우 정신적 마비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감았던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봄과 동시에 지독한 분노의 감정에 휩싸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울의 단계인데 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무력감, 무가치감,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 등이 뒤엉켜 자포자기하거나 우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수용의 단계로, 힘들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이때만큼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자기만의 강력한 에너지를 찾자

폭풍처럼 닥친 시련 앞에서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좌절하고 괴로워하며 절망에 빠지지만,

곧 내면의 힘을 회복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는 점이 다른 이들과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 일상의 소소한 문제 앞에서 뒷걸음치고 좌절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소수의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만의 강력하고도 충분한 에너지를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나르시시즘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만심과 자긍심은 다르다

자만심과 자긍심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둘 다 나르시시즘을 기저로 삼고 있습니다. 과시적인 나르시시즘은 자만심으로 나타나며, 자만심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장점만을 부각하고, 보고 싶은 면만을 보려고 하게 되며, 다른 사람 역시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긍심은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려는 사람들이 갖는 감정입니다. 또한 스스로의 나르시시즘을 인정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나르시시즘도 인정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를 받는 사람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과시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 자신을 과시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반대의 상황에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이면에 대해서도 항상 열린 생각과 시각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예상 못한 면이 튀어 나왔을 때 상대를 깔보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면을 깨달았다는 마음가짐으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나를 알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 긍정적인 나르시시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용감하게 길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글 유송희 실장(HD현대삼호 마음정원)
참고도서 **인간관계에서 진실한 마음을 얻는 법**

꼼꼼하고 계획적인 건강검진으로 중증 질환 예방하고 삶의 질도 높이자

모 대기업 부장 홍모 씨(52)는 건강하다고 나름 자부해왔다. 신장 175cm, 체중 80kg, BMI 지수 26.1. 복부 둘레가 조금 과하다 싶고, 잦은 회식으로 운동을 거의 못했지만 그래도 45세부터는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재작년에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이 많았다. 정신 없는 한 해를 보낸 결과, 회사에서 승진을 할 수 있었고, 아들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렇게 한 해를 건너뛰고 작년 건강검진을 받았다. 처음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도 받았다. 결과는 놀랍게도 대장암이었다. 서둘러 복부골반 CT를 찍었는데 다행히 전이의 소견은 없었다. 그 순간 홍 씨의 뇌리에 몇 년 전 지방에 계신 작은 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스쳐갔다. 홍 씨는 즉시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일상생활로 복귀해 잘 지내고 있다. 돌아해보면 아찔한 경험이었지만, 지금은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검진 및 평상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며 누구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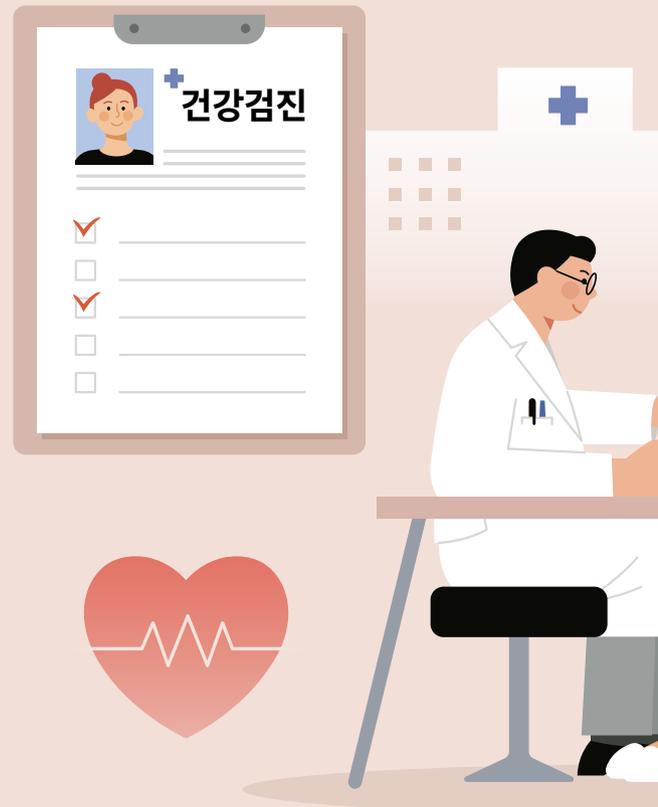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건강검진

많은 이들이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 마음 가는 대로 운동을 시작했다가 점차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다.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잘 이해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고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본인에게 꼭 맞는 건강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암과 같은 무거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습관병과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고민할 때는 연령, 성별 등 일반적인 요소 외에도 가족력, 기존 병력 등 나만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연령에 따라 검사 항목을 다르게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연령별로 검사항목을 달리하는 것을 권고한다. 신장, 체중, 비만도, 혈압, 혈당 등 모든 연령에 걸친 공통 검사항목으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화로 인해 신체적인 특징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 변화



하기 때문이다.

20~30대의 경우 가족력과 관계 있는 질환에 따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위암의 가족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불분명한 체중 감소, 빈혈 또는 위장 증상이 있다면 위내시경을 권한다. 흉통이나 숨참,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있다면 심장초음파 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여성이라면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의 발생 증가 추세를 감안해 이 시기부터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면 35세 전부터 매년 유방촬영술을 하고 치밀유방인 경우 유방초음파를 같이 받을 것을 권한다.

40대는 암, 생활습관병,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다. 40세 이후에는 1~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위암 가족력, 위축성 위염 등이 있는 경우는 매년 검사가 필요하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비만, 고지방 식이습관, 대사증후군 등이 있으면 40대에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45세 이후 남성은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위험이 높아

지므로 음주, 흡연, 복부비만, 생활습관병 여부에 따라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은 폐경을 전후해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령대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지는 않으나 운동능력의 감소를 보이는 경우 운동부하검사를 시행해 운동 처방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50대는 암 검진을 포함한 정밀 건강검진을 본격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때부터는 대장내시경과 CT 검사를 추가하게 된다. 저선량 흉부CT도 필요한데 연간 30갑 이상 흡연하는 경우 1년, 폐암 가족력 또는 직업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1~2년 주기가 적절하다. 또 증상이 없어도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이다.

사전 검사를 통해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평가해 보는 것도 좋으며 심장초음파, 동맥경화도, 운동부하검사 등이 추천된다. 경우에 따라 관상동맥 CT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하지의 동맥경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동맥경화도 검사와 경동맥혈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해 볼 수 있다.

60대 이상부터는 암과 허혈성 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서 CT나 MRI를 동원한 자세한 검사를 고려해볼 수 있다.

꼼꼼한 검진으로 소중한 건강 지키자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생존율을 높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암 조기검진 사업 시작 이후 20년 동안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2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동기부여 및 생활습관 개선을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올 한 해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희미해지기 전에 건강검진으로 구체적인 건강 목표를 세워 실천해 보면 어떨까?





사보가 전해드립니다



HD현대중공업
안전경영부
유승훈 매니저

‘연을 쫓는 아이’는 영화로 먼저 접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배경에 생소해하면서도,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작품을 책으로 다시 읽어보고 싶은 이유는 작가의 흡입력 있는 글 솜씨 때문입니다. 같은 작가의 다른 소설인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 뛰어난 묘사력에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책을 다 읽고 이 작가가 쓴 다른 책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접한 ‘연을 쫓는 아이’ 역시 책으로 읽는다면, 실제로 그곳에 간 것 같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화와 책에서 보는 주인공 아미르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게 묘사됐는지 얼른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연을 쫓는 아이

할레드 호세이니 著

이 책은 아프가니스탄 카불 출신 할레드 호세이니 작가가 소련과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부터 발발 이후의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소년이었던 아미르가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도련님을(너를) 위해서라면 천 번이라도!” 카불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미르와 집안 하인의 아들 하산은 신분의 차이에도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아미르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우정을 깨뜨리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아미르와 아프가니스탄에 남은 하산의 인생은 더욱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소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아미르가 자신의 실수를 속죄하는 과정을 몰입감 있게 그려냅니다.

이 책은 잘 알지 못했던 아프가니스탄의 모습과 한 사람의 어린 시절 실수와 속죄, 가족·친구 등의 주제를 다루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고뇌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선물 받고 싶은 책은?”

읽고 싶은 책의 이름과 그 이유를 사보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매월 한 분을 선정해 희망 도서와 1만원 상당의 소정의 상품을 함께 보내 드립니다. ※사보에는 신청자의 사연과 함께 사진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추천 도서 원고도 접수 받습니다! 책 제목, 저자, 추천하는 이유를 7~8줄 정도 적어 책을 추천해주세요. 사보에 실린 분에게는 1만원 상당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HD현대중공업 yey6507@hd.com / HD현대미포 yhlee7@hd.com / HD현대삼호 P021601@hd.com

총균쇠

재러드 다이아몬드 著

‘총균쇠’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다룬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는 책으로, 저자 마이클 무어는 독자로 하여금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풀어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책은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통해 장대한 인류사를 풀어내며 오늘날 현대 세계가 불평등한 원인을 종합 규명한 혁신적 저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출간 25년 기념 뉴에디션에는 2023년 저자 특별 서문과 서울대 인류학과 박찬선 교수의 해제, 새 서문과 후기를 수록해 풍성한 읽을거리를 더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더 잘 이해하고,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책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HD현대삼호 선박커미싱닝부 **박찬중** 선임매니저



샤이닝

윤 포세 著

이 책의 저자인 윤 포세는 202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단기간에 엄청난 관심을 폭발시킨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작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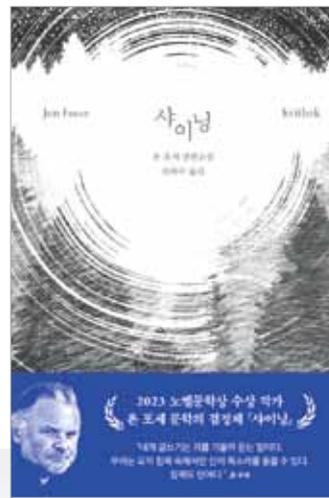
윤 포세의 최신작인 이 소설은 작가 데뷔 4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작품으로 본문 길이가 채 80쪽도 되지 않으나, 1,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걸작 '7부작Septologien'의 압축판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샤이닝’은 그의 문학세계의 결정적인 특징이 모두 망라된, 가장 쉬운 단어로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룬 또 하나의 수작입니다.

특히 이 책은 작가가 천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글쓰기의 주제를 엿볼 수 있는 정수가 담긴 작품으로 불립니다.

완연한 봄을 맞아,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이 되는 사우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HD현대미포 동반성장부 **홍석운** 매니저



ULSAN

NOI METUERE, UNA TECUM BONA MALA TOLERABIMUS



K리그 단독 선두, ACL 준결승 진출! 클럽 월드컵 진출까지 단 한 걸음

그 누구도 올해 초반 울산 HD의 좋은 성적을 쉽사리 짐치지 못했다. 하지만 울산 HD는 성적표로 증명해냈다.

바쁜 일정에도 순조로운 출발

32일 간 홈에서 네 경기, 원정 세 경기, 그리고 해외로 건너가 치른 경기까지 울산 HD는 국내 외를 동분서주 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7경기 5승 2무, K리그 3R 만에 단독 선두 굳히기에 이어 ACL(AFC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진출까지 성공해내는 등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팬들의 리그 3연패 기대에 앞장서고 있는 울산 HD다.

울산 HD 파죽지세의 선봉에 선 선수들은 '로컬 보이' 설영우와 이동경이다. 이들은 2년 전 일왕배 우승컵을 들며 일본 J리그에 돌풍을 일으킨 '반포레 고후'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해 울산 HD의 ACL 8강전 진출에 일조했다. 뿐만 아니라 설영우는 8강 전북현대와의 현대家더비에서는 2차전 결승골로 터뜨리며 울산 HD의 2년 만의 ACL 4강 진출을 견인한 장본인이다. 수비수의 본 역할과 순간적 공격수 포지션 변환(인버티드

폴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가대표에서도 통하는 수비수임을 여실 없이 증명한 설영우다. 이동경은 리그에서 본인의 진가를 발휘했다. 3라운드 현재 3득점으로 수치로도 본인을 증명한 이동경은 활동량과 기여도 같은 '정성적' 활약에서도 빠짐없는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3월 중순 여여쁜 딸까지 가족 명단에 합류했으니 더할 것 없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동경이다.

울산 HD의 빛나는 수문장 '빛현우' 조현우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반포레 고후, 전북현대, 포항스틸러스 등 강팀들을 상대로 한 박박한 일정에서도 경기 당 1.2실점으로 울산 HD의 뒷문을 촘촘히 걸어 잠갔다. 전북현대와의 ACL 8강전에서의 슈퍼세이프만 세 개를 훌쩍 넘을 정도로 중요한 경기에서는 더욱 빛나는 활약을 선보였다.



설영우



클럽 월드컵을 향한 마지막 퍼즐

최근 부쩍 ACL 경기에 미디어와 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2025년부터 개편되는 FIFA 주관의 클럽 월드컵과 관련이 있다. 클럽 월드컵은 기존 1년 개최 주기에서 4년 개최 주기로 변경되며 참가 팀 수도 7개 팀에서 32개 팀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보상의 규모도 크게 업그레이드됐다. 몇몇 외신에 따르면 대회 참가 상금만 수백억에 달할 것이라는 소식이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다.

울산 HD가 속한 아시아 지역(AFC)에는 총 네 장의 출전권이 부여되며 그 중 두 장은 이전 대회 우승 팀들에게 배정된 상황이다. 결국 울산 HD는 남은 두 장의 출전권을 노려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 8강에서 전북현대를 꺾으며 비교적 유리한 상황으로 출전권에 다가서게 됐다.

현재 울산 HD의 클럽 월드컵 진출 포인트는 78점, 전북현대의 진출 포인트는 80점이다. 전북현대가 아시아 지역 최고 포인트(출전권 확보 팀 제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보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현대는 울산 HD에게 패배하며 더 이상 포인트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울산 HD는 4강에서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일본)과의 두 경기에 따라 최대 9점까지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포인트 부과 기준 : 경기 승리 3점, 정규 시간 무승부 1점, 다음 라운드 진출 3점) 울산 HD는 오는 4월 17일(수) 요코하마와 울산에서, 24일(수) 일본에서 두 차례의 ACL 4강전을 치른다.

자매결연 해군부대서 장학금 수여

한편, 치열한 경쟁 속 훈훈한 소식도 전해졌다. 울산 HD가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사령부 예하 자매결연 부대의 승조원들로부터 유소년 선수 후원 장학금을 기부 받았다. 울산 구단과 잠

수함 사령부 예하 자매결연 부대의 인연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6년 4월 울산 구단의 모기업인 HD현대중공업에서 잠수함사령부 예하 함정을 건조, 진수하며 자매결연 부대와 울산 구단은 간접적인 인연을 맺게 됐다.

이후 여러 교류, 협력 활동을 통해 인연을 유지해 온 양 측은 올해 2월 양 기관은 다시 한번 뜻깊은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자매결연 협약의 연장이자 교류·연계 활동의 일환으로 울산 HD 구단의 우수 유소년 선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울산 HD의 U15 팀에 소속한 미드필더 서승욱 선수가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선발됐으며, 선발 과정에서는 울산 유소년팀 코칭스태프가 참여했다. 팀 내에서 모범적인 단체 생활과 유망한 선수로 평가돼 장학 혜택을 받은 서승욱 선수는 “재활로 인해 시즌을 늦게 시작했지만, 이번 장학금 수여가 제게 큰 동기부여이자 힘이 될 것 같다”며 “잠수함 사령부 군인분들의 힘을 뒤에 업은 만큼 이번 시즌 활약도 성장도 많이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울산 HD와 잠수함 사령부는 이번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으로 올 시즌에도 활발한 교류, 상호 협력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글 강한프로(울산 HD FC 팬 & 미디어팀)



이동경

조현우





협력사 안전 기술지원 협약

HD현대중공업이 고용 인력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 지원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3월 12일(화) 본관에서 노진율 사장, 고용노동부 김재훈 울산지청장, 산업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 정희재 산업안전부장과 사외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 기술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종료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외 협력사에 대한 안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은 상시 고용 인력 50인 미만인 사외 협력사 2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 준수 컨설팅, △안전보건 기술 자료 제공,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블록제작 협력사뿐 아니라 50인 미만 소규모 협력사로 안전관리 기술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소규모 협력사가 대비하기 힘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중심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2023년 세계우수선박, 4척 선정

HD현대중공업이 41년 연속으로 세계 우수 선박을 배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 영국 조선·해양 전문지 기관인 RINA (The Royal Institution of Naval Architect)는 HD현대중공업이 2023년 인도한 선박 중 4척을 세계 우수 선박으로 선정했다.

이들 선박은 △17만4천m³급 LNG운반선인 레흐 카친스키 (LECH KACZYNSKI)호, △1만3천200TEU급 컨테이너선인 완하이 A01호(WAN HAI A01)호, △8만6천m³급 LPG 운반선 GAS JUSTESEN호, △11만4천 DWT급 정유제품운반선 OCEAN BLUE호로, 세계 선박 전문가들의 기술·디자인·성능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레흐 카친스키호는 공기유탄시스템(Hi-ALS)과 축 발전기(Shaft Generator)를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 완하이 A01호에는 선내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최적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 운항 장비 관리 시스템 ISS를 탑재해 스마트십솔루션 선급부호(OE, PE)를 부여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OCEAN BLUE호는 그룹사 최초 단일 LNG 탱크 적용한 LNG 이중연료 LR2급 정유제품운반선이다.



힘센엔진 친환경기술, 7개 선급 승인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메탄올 이중연료(DF) 힘센엔진의 친환경 기술력을 세계 7개 선급회사로부터 인증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3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엔진기술센터에서 ABS(미국), BV(프랑스), DNV(노르웨이), KR(한국), NK(일본), LR(영국), RINA(이탈리아) 등 7개 선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메탄올 DF 힘센엔진(모델명: H22CDFLM)'에 대한 승인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 세계 최초의 메탄올 DF 엔진(모델명: H32DF-LM)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모델이다. 디젤과 메탄올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엔진으로 1천440~2천160kW의 출력을 낼수 있다. 또, 독자 개발 메탄올 승압 장치인 e-HBU(electro-Hydraulic Boosting Unit)를 탑재해 선박 안정성 및 엔진 성능을 향상시켰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선급 승인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올해 하반기 또 다른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암모니아 DF 힘센엔진의 승인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엔진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정 스텔스 성능 향상 특수 도료 개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대한민국 함정 최초로 특수도료인 '고내후성(高耐候性) 차열도료(遮熱塗料)'가 적용된다.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KCC와 함께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내후성 차열도료 개발에 성공했다. 이 도료는 태양 복사열(근적외선)을 반사해 함정 표면의 온도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다. 특히, HD현대중공업 등이 개발한 제품은 외산 제품 대비 높은 적외선 반사율로 차열 성능이 30% 이상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국산 함정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함정의 가열된 선체가 발산하는 적외선(IR)을 줄여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내후성 차열도료를 함정 외부의 표준 도료로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들이 기술보호 대상 방산물자로 지정해 국내 함정에 적용되지 못했지만, 이번 HD현대중공업 등의 국산화로 국내 함정 적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고내후성 차열도료는 지난해 말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완료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국내 함정 중 최초로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첫 자율운항 실증선박 건조 성공

HD현대미포는 지난 3월 8일(금) 울산 본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운항 실증선박인 '포스 싱가포르(POS SINGAPORE)'호를 비롯해 '포스 램차방(POS LAEMCHABANG)'호 등 1천 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동시 명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관 HD현대미포 사장과 안중호 팬오션 사장, 권명호 국회의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새로운 선박 탄생을 축하하고 안전항해를 기원했다. '포스 싱가포르'호는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지능항해시스템, 기관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자율운항 핵심기술들을 검증해 선원의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운항 가능한 '자율운항 3단계'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증강현실(AR) 블록 검증시스템 구축

HD현대미포는 최근 '증강현실(AR) 활용 블록 검증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 3월 8일(금) 사내 P.E장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디지털생산혁신센터의 수행 과제인 이 시스템은 태블릿 기기의 카메라를 실제 블록과 의장품에 비추면, 설치 각도와 위치 등의 주요 검사 정보와 함께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다. 도면과 직접 비교해 가며 정도(精度)를 확인하던 기존과 달리, 3차원 설계 데이터를 활용해 직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검사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HD현대미포는 철의장품과 블록러그(Lug), 곡 외판 등을 대상으로 신규 시스템의 효과성을 입증했으며, 향후 선형도장과 선체조립 등 내업 전반의 품질검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시설 공공요금 960만원 후원



HD현대미포는 지난 3월 14일(목)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인 광명원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후원금 96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 960만원은 향후 1년간 시각장애인 17명이 광명원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에너지 요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HD현대미포와 광명원이 인연을 맺은 지 20주년을 맞이한 자리라 더욱 뜻 깊은 의미를 가졌다. 한편, HD현대미포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 밑반찬 김치나눔 봉사, 수변 환경정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 조선해양산업 발전·활성화 도모

HD현대삼호는 지난 3월 19일(화) 본관 1층 VIP접견실에서 목포대학교, 전남대불산산업융합원과 '전남 조선해양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신현대HD현대삼호 대표이사 사장,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조두연 전남대불산산업융합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조선해양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미래기술연구원 설립, 고도화된 기술 연구·실증에 필요한 인프라 공동 활용,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주부대학총동창회,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

HD현대삼호 주부대학총동창회가 지난 3월 14일(목) 봄을 맞이해 회사 서문출입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동창회원 30여 명은 한마음회관에서 서문출입구까지 갈마산 이면도로와 대로변 인도에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 등을 말끔히 청소했다.

특히, 서문 출입구 주변과 주차장을 중심으로 배수로에 버려진 담배꽂초 등의 이물질을 집중 수거했다.

주부대학총동창회는 주기적으로 회사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HD현대삼호는 지난 3월 8일(금)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LNG선과 기타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세계 시장 수요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LR선급 관계자가 발표자로 나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세계 시장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세계 조선 시장은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로 인해 친환경 선박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를 비롯해 메탄올, 암모니아 추진 선박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앞서기 위해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세미나 개최



그룹사·병원·학원 소식 News

| HD현대 |

팀 네이버와 손잡고 디지털 전환 박차



HD현대는 지난 3월 11일(월)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팀네이버와 '클라우드 전환 및 AI 사업화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HD현대가 보유한 2억 건 이상의 조선·해양 관련 데이터베이스(DB)에 네이버의 AI '하이퍼클로바X'를 적용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구현 및 활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HD현대가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인 인프라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D현대와 팀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선 및 해운 분야에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 '메타오션데이터 클라우드'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해양 종합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 세계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수집해 선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HD한국조선해양 |

해상 원자력 에너지 협의기구 설립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3월 6일(수) 글로벌 원자력 기관들과 '해상 원자력 에너지 협의기구(이하 NEMO, Nuclear EnergyMaritime Organization)'를 공동 설립했다.

세계 해상 원자력 분야 첫 국제 민간기구인 'NEMO'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해상 환경에서의 원자력 배치, HD현대마린 솔루션 친환경 개조시장 개척 운영 및 해체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표준과 규정을 수립하고 해상 원자력 상용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NEMO에는 HD현대를 비롯해 미국의 대표적인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Terrapower), 원자력 발전소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EC), 영국의 로이드선급(LR) 등 총 7개국 11개의 원자력 분야 선도 기업들이 참여한다.

| HD현대사이트솔루션 |

전통시장 비상용 소화전 지원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지난 3월 6일(수) 울산 동구 월봉시장에서 울산 동부소방서와 '비상용 소화전 기부 명판식'을 갖고, 이를 활용한 화재 진압 시연회도 진행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상인 2명이 직접 참여해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새 소화전의 성능을 확인했다. 전통시장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소화전이 필수적이지만, 기존 시설함은 눈에 띄지 않고 호스도 무거워 고령층 상인들의 사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동부소방서·대한적십자사·울산시 등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지역 화재 예방 사회공헌사업에 착수, 지난달 월봉시장과 남목마성시장 2곳의 소화전을 호스릴 방식으로 교체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앞으로도 동부소방서, 전통시장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민간 협업 활동을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이 최근 그리스 넵툰(Neptune)사와 자동차운반선 4척에 대한 '엔진 부분 부하 최적화(EPLO: Engine Part Load Optimization)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EPLO는 Δ엔진 출력에 맞춰 터보차저(과급기)를 교체 또는 개조하거나 Δ연료 분사량 및 분사 시기, 연료-공기 혼합비 등을 조절하여 연소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솔루션이다. EPLO를 활용하면 최대 1kWh당 6g의 연비 개선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탄화 침전물 발생을 억제해 엔진 수명 연장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400GT(톤) 이상 선박의 60% 이상이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제시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탄소집약도지수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EPLO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일렉트릭이 카이스트(KAIST) 기계공학과와 손잡고, 전기·전자기기 분야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3월 12일(화) 대전 카이스트 본교에서는 연구담당 이찬주 상무(CTO)와 카이스트 기계항공공학부장 김정 교수 등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과제 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특정 대학과 산학협력 계약을 선행하여 체결한 후 여러 연구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형 R&D 펀딩' 방식을 최초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연구 과제마다 산학협력 대상을 선정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기술 개발이 필요한 연구 과제들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HD현대일렉트릭은 향후 2년간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양 기관은 전기·전자기기 분야 원천 기술 확보 및 현장 적용 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울산 HD가 울산대학교병원과 함께 취약 계층 의료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울산 구단과 울산대학교병원은 지역 사회 공헌 파트너로서 '지역 건강 지킴이'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울산 구단의 K리그 1승마다 울산대학교병원이 종합 건강검진권 1매를 적립, 리그 종료 후 이를 지역 취약 계층에 전달하는 활동에도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나아가 캠페인 홍보대사로 참여한 이청용, 조현우, 설영우의 활약에 따라 추가적인 건강검진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 HD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23승을 거두었으며, 이청용·조현우·설영우도 맹활약하며 2천만원 상당의 건강검진권 46장을 적립했다.

적립된 건강검진권은 현재까지 총 31명의 수혜자들을 위해 사용됐으며, 남은 검진권들도 수혜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선정되는 대로 사용될 예정이다.

| HD현대마린솔루션 |

선박 엔진 최적화 기술로 친환경 앞장



| HD현대일렉트릭 |

카이스트와 전기·전자기기 기술 협약



| 울산 HD FC & 울산대학교병원 |

지역 취약 계층 의료 지원



HD현대중공업판 별주부전

본격 시작된 실무 OJT, 일상 속에서 느낀 자연재해 등을 상기하며 ESG 필수 개념인 탄소중립에 대해 알아본다.

**관 전
포 인 트**

- ①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 알아보기
- ② 탄소중립(넷제로)의 개념과 필요성 알아보기





아하 그래서 탄소배출을 줄이라는 거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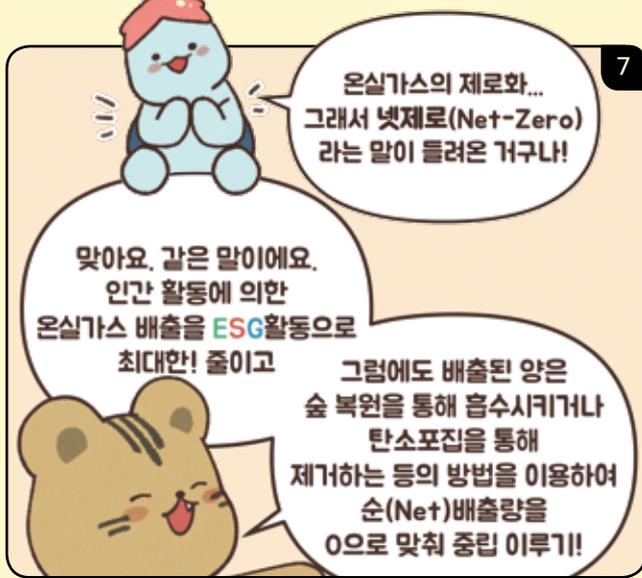
근데... 탄소배출은 이제 알겠는데 탄소중립은 정확히 뭔가요?

5



탄소중립이란,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제로(ZERO)와 한다는 거예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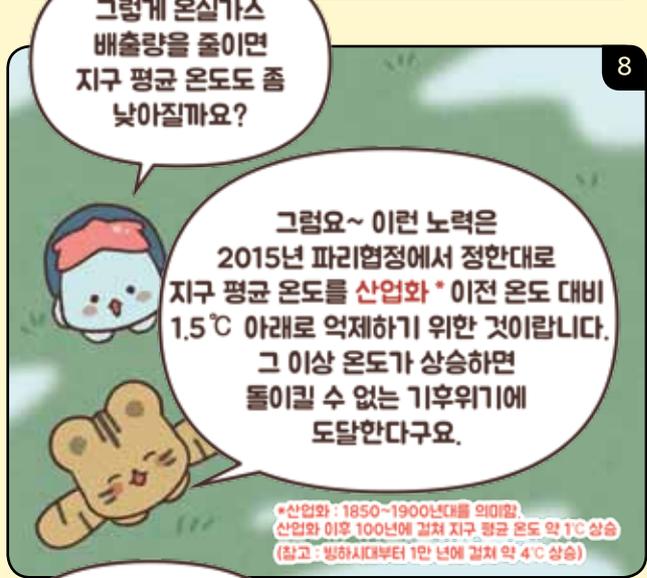


온실가스의 제로화... 그래서 넷제로(Net-Zero)라는 말이 틀려온 거구나!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ESG활동으로 최대한! 줄이고

그럼에도 배출된 양은 숲 복원을 통해 흡수시키거나 탄소포집을 통해 제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순(Net)배출량을 0으로 맞춰 중립 이루기!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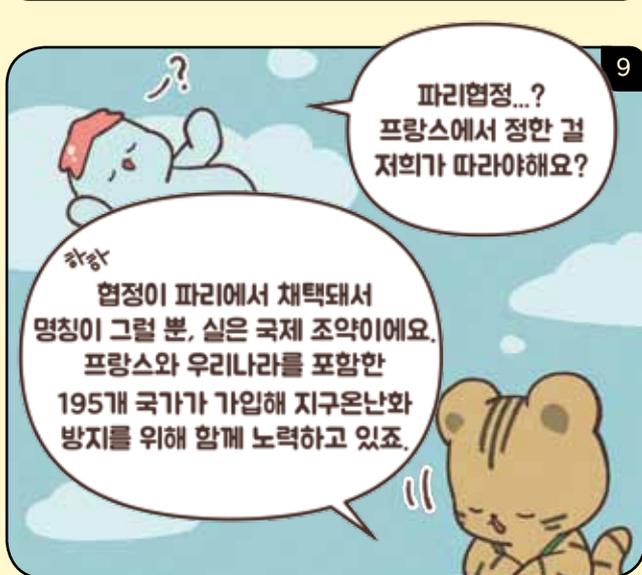


그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지구 평균 온도도 좀 낮아질까요?

그럼요~ 이런 노력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정한대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온도 대비 1.5°C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상 온도가 상승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에 도달한다구요.

*산업화 : 1850~1900년대를 의미함. 산업화 이후 100년에 걸쳐 지구 평균 온도 약 1°C 상승 (참고 : 빙하시대부터 1만 년에 걸쳐 약 4°C 상승)

8



파리협정...? 프랑스에서 정한 걸 저희가 따라야해요?

헛헛 협정이 파리에서 채택돼서 명칭이 그럴 뿐, 실은 국제 조약이에요.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195개 국가가 가입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죠.

9



전 세계가 노력해야하는 큰 일인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뭐가 될까요?

물론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뜻을 모아 노력한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10

공감 마당

| HD현대중공업 에너지운영부 |
정제운 기사



현장에서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연히 접한 사보에서 우리 회사 소식들을 읽어보니, 애사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HD현대미포 기장설계부 |
구상준 책임엔지니어



[사우들의 추천 도서] 코너를 읽으면서 책에 대한 사우들의 생각, 의견 등을 공유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독서가 모자란 입장에서 권유를 받는 느낌도 들며, 긍정적인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늘 잘 읽고 있습니다.

| HD현대삼호 건조2부 |
신상주 사원



저도 손목통증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가 특히나 손목통증이 심하셔서 기사에 실린대로 스트레칭을 했더니 효과가 있어 너무 와닿은 기사였습니다. 거리가 멀어 직접 가긴 어렵겠지만, 현대에 술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보사노바의 뮤즈 리사오노 내한공연 기사도 관심이 있습니다.

| HD현대중공업 신선중설계부 |
이형배 책임엔지니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는 사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반가웠고, 저 역시 미안마에 파견 가본 경험이 있어 가족 사랑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 HD현대미포 선체품질경영부 |
최현정 4급기사



우타백 사우 가족들이 한국에 방문한 기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사우들에게도 가족의 애뜻함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계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HD현대삼호 선행건조부 |
윤진 사원



목포의 볼거리와 맛집을 소개해준 '가볼만한 곳 - 낭만의 도시 목포'가 좋았습니다. 타지인인 저는 어느 곳을 가봐야하는지 잘 모르기에 도움이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맛집들은 처음보는 곳들이라 너무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가족 4월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소감, 아쉬운 점이나 다음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4월 19일(금)까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기재)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HD현대중공업** yey6507@hd.com, **HD현대미포** yhlee7@hd.com, **HD현대삼호** P021601@hd.com

HD현대미포 건조부
정인수 매니저



3월 23일(토)
신랑 정인수 · 신부 박하은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D현대중공업 프로세스기계설계부
반수진 사원



3월 23일(토)
신랑 임성권 · 신부 반수진

꽃향기 그윽한 봄 햇살 아래 저희 결혼
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HD현대삼호 총무부
이미지 사원



4월 20일(토)
신랑 문병훈 · 신부 이미지

저희 가족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HD현대미포 선체가공부
박서준 책임매니저



3월 5일(화)
아빠 박서준 · 엄마 이도경 아들 박이한

이한아,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건강
하고 바르게 자라다오!
그리고 임신기간부터 출산까지 고생 많
았어 도경아~ 사랑한다 ♥

HD현대삼호 HR부
정재엽 책임매니저



3월 6일(수)
아빠 정재엽 · 엄마 이정현 아들 정기윤

소중한 우리 기윤이 앞으로 행복하고 건
강하길 ♥

HD현대중공업 특수선장설계부
신대해 선임엔지니어



3월 7일(목)
아빠 신대해 · 엄마 김나운 딸 신재은

재은아 엄마 아버지한테 와줘서 고마워,
항상 즐겁고 재밌게 살자 :) 사랑해 ♥

H: 에이치! 이제 봄이 와서 그런지 흠씨가 돌아다니네요.
 D: 디게 따듯해질 것만 같아요!
 현: (HD)현대중공업의 52주년과 봄이 참 잘 어울려요
 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중: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공: 공들여 쌓은 52년의 세월,
 업: 업고 돌고 싶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HD현대중공업의 52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52번째 생일은 여기서 축하하지만
 55번째 생일은 저도 일원으로서
 함께 생일파티에
 참여할 거예요 ♡♡

- HD현대중공업 입사를 꿈꾸는 대학생 -

HD현대중공업
52번째 생일이라니!
오(5)! 놀라워라~
이(2)렇게나 든든한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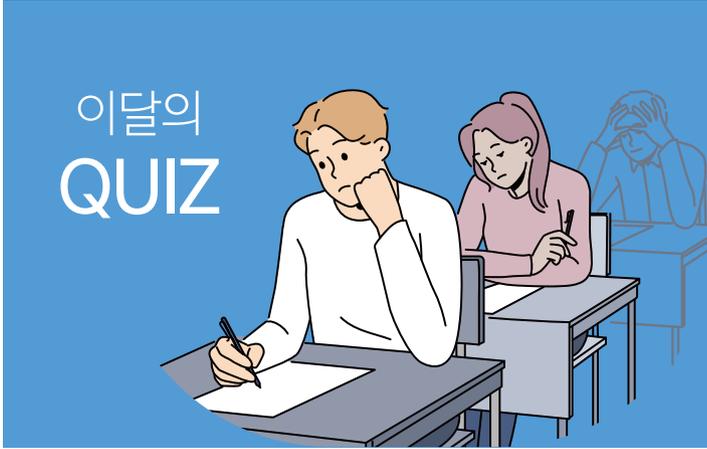
현중이 생일축하해~~

채용 합격소식을 들을 때쯤 둘째 아이
 임신 소식을 듣고 태명을 '현중이'로 했었어요.
 그 아이 '현중이'는 훌쩍 커서 중2가 되었는데
 찐 '현중이'는 52살이나 되었군요^^
 앞으로도 백수 천수를 누리길 기원합니다~~
 축하해

HD현대중공업이 없는 울산은 어땠을까요?

초등학교 댄 중공업 안 어딘가의 잔디밭으로!
 중학교 댄 동구 중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농구가 한창 인기 있을 때 체육관에서
 농구 봤던 기억도 있네요.
 지금은 저도 중공업에 다닙니다.
 앞으로도 같이 늙어가요

※ HD현대중공업의 창립 52주년을 맞아 HD현대중공업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팔로워들이 보내준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01.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 사내 핵심가치 내재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OOOO OO'를 신설했다.

OOOO OO에 들어갈 단어는?

02. HD현대 조선 3사는 지난 3월 3일(토) 베트남 OOO에서 'E-7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 도시는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수도(首都)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불리는 곳이다.

OOO에 들어갈 단어는?

03. 올해 창업자 23기 추모행사를 위해 제작된 추모 특별 영상에는 아산 생전에 두터운 친분을 쌓았던 OO 시인이 쓴 추모시가 담겼다.

OO에 들어갈 단어는?

※ 빈칸에 들어갈 단어 모두 작성할 것

지난 호 정답

①워터베이 ②트랜스포터

퀴즈 응모 방법



퀴즈의 정답을 4월 19일(금)까지 QR코드 접속 후 작성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추첨을 통해 푸집한 상품을 드립니다.

<https://forms.gle/LS2Er3n3xDszUdpd8>

당첨된 사우에게 상품 수령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기프티콘 상품권은 사보 발간 후 일주일 이내에 개별 전송됩니다.

지난호 퀴즈 당첨자

울산대학교병원 건강검진권(1매)

이경석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1부)

라한 호텔현대 뷔페권(2인)

박종식 (HD현대미포 공사지원부)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백금현 (HD현대중공업 제품화실)

김수양 (HD현대중공업 시스템품질경영1부)

하채원 (HD현대중공업 계약운영부)

강은우 (HD현대미포 선체조립부)

치킨 기프티콘(2만원권)

구수진 (HD현대중공업 조선예산지원부)

윤성훈 (HD현대중공업 통관팀)

조동민 (HD현대중공업 의장물류부)

정경호 (HD현대중공업 자산운영부)

이윤지 (HD현대엔터 의장설계2부)

커피 기프티콘(1만원권)

이용삼 (HD현대중공업 도장1부)

정주용 (HD현대중공업 에너지운영부)

권용재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표정민 (HD현대중공업 의장생산부)

이수영 ((주)그리드컴)

황보희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1부)

정제운 (HD현대중공업 에너지운영부)

이형배 (HD현대중공업 신선선설계부)

유승훈 (HD현대중공업 안전경영부)

마트 기프티콘(1만원)

한규석 (HD현대미포 선박커미셔닝부)

최필규 (HD현대미포 디지털생산혁신센터)

라한 호텔현대 목포 뷔페권 2인

이주형 (HD현대삼호 원기관리부)

라한 호텔현대 목포 케이크 교환권 1매

박도준 (HD현대삼호 차세대업무혁신부)

강유순 (제이케이기업)

사내 매점 간식 교환권 1만원

박세휘 (HD현대삼호 선박커미셔닝부)

박지은 (HD현대삼호 기장설계부)

박혜민 (HD현대삼호 총무부)

백혁진 (HD현대삼호 의장2부)

전주은 (HD현대삼호 시스템품질경영부)

추준용 (HD현대삼호 산업설비부)



눈 떠보니 신입사원

Ep.3 기존의 틀을 깨다.

2012년 과장이 된 인중현, '친환경 이중연료 엔진 개발'이라는 두 번째 미션을 받게 된다.
설계 경험이 풍부하진 않지만,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설득에 나서는데...

※지난이야기: '육상 건조', '텐덤 공법' 그리고 누구보다 그의 의견을 '존중'해 준 동료들의 도움으로 첫 번째 미션을 성공한다.





두번째 미션!
 "이들 안에, 차별화된
 친환경이종연료(DF)
 힘센엔진 개발에 착수하라"
 *바편 환경에 대한 정보는
 문자함에 있음.

5

이들 안에
 이걸 다 검토하고 컨펌까지..?
 ㅎㅎ후 일단 해보자고!



7

부장님 말씀하신 도면은
 자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종연료 엔진개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9

인과장 자네 의지는 알겠네.
 하지만 지금 밀린 디젤엔진
 개선 요청도 많을 텐데,
 도면 하나라도 더 그려서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나?



실계 업무라면 엔진계사업부에서
 어찌너머로 배운 1년이 전부다.
 게다가 2012년이라면 대부분의
 엔진 제조사가 디젤 엔진 성능 최적화에
 매몰돼 DF 엔진은 생각도 못할 때인데...

6

부장님이 말씀하신 개선 디젤엔진 설계 도면은
 얼추 마무리 됐고, 문제는 DF 엔진 설득인데..
 황산화물 규제만을 이유로 '친환경'엔진
 제작을 설득하기엔 한계가 있어.



8

※당시 2020년 적용 예정인
 황산화물(SOx) 규제가 이미
 예고돼 있었다.



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10년 사이 10배 넘게
 성장한 힘센엔진이 보여준 가능성이
 지금 저희가 친환경이종연료 엔진 개발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

10년 뒤, 어쩌면 더 빠른 시점에,
 분명 저희만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어있을 겁니다.